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18년 10월 7일(주일) 제1215호

“한 영혼을 섬기는 CGNTV의 5만 명 후원자가 되어 주세요”



사진은 지난해 CGNTV 정기후원 약정행사.

온누리교회 창립 33주년 및 CGNTV 정기후원 약정행사 정기후원 약정서 제출,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참여

오늘(7일)은 온누리교회 창립 33주년 기념주
일이자 CGNTV 정기후원 약정행사 날이다.
온누리교회의 정체성인 '선교'를 되새기고
CGNTV 정기후원도 하는 뜻 깊은 날이다.

CGNTV 정기후원 약정행사는 온누리교회
국내 10개 캠퍼스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오늘
예배에서 나눠주는 정기후원 약정서를 작성
해서 제출하거나 CGNTV가 운영하는 안내 부
스, 전화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동참할 수
있다. 신규후원자는 신규후원을, 기존 후원자

는 증액후원 및 가족후원을 선택하면 된다.

CGNTV는 이번 정기후원 약정행사에서 '후
원자 5만 명 달성'을 목표로 삼고 있다.
CGNTV 후원자가 5만 명이 되면 더 많은 나
라에 더 좋은 기독교 콘텐츠를 송출할 수 있다.
차세대를 위한 콘텐츠 제작, 안정적 방송 시스
템 구축, 기독교 콘텐츠를 15개 언어로 추가
제작, 오픈플랫폼을 공략 콘텐츠 제작 등을 할
수 있다.

CGNTV는 후원자들의 순수 후원으로만 운

영되기 때문에 성도들의 적극적인 정기후원
약정행사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현재
CGNTV 후원자가 3만 1천여 명인데 기존 후
원자들이 신규 후원자 한 명씩만 모집하면 후
원자 5만 명 달성이 충분히 가능하다.

한편 오늘 교회에서는 온누리교회 창립 33
주년을 기념하는 떡과 국수를 나눠준다. 서빙
고와 양제는 성인예배 기준으로 1~3부 예배까
지 국수를(서빙고 식당, 구 골프연습장, 양제
식당, 주차장), 4부 예배부터는 떡을 나눠준다.
나머지 캠퍼스는 자체적으로 교회 창립 기념
행사를 개최한다.

CGNTV 정기후원 문의: 02-796-2243

홈페이지(<http://www.cgntv.net/>)

제2회 거북이 마라톤대회 10월 13일 오전 8시 집결

온누리교회와 산마루교회가 함께 제2
회 거북이 마라톤 대회를 개최한다. 거
북이 마라톤은 성도들과 노숙인들이 서
로를 바라보며 속도를 맞춰 달리는 대회
다. 10월 13일(토) 오전 9시에 시작된다.

참가신청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
(www.onnuri.org)에서 하면 된다. 신청
서를 작성할 때는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신청종목(5km 걷기, 5km 달리
기, 10km 달리기 중 택 1), 캠퍼스, 공동
체, 입금자명을 반드시 기입해야 한다.
거북이 마라톤 행사 신청에 따른 개인정
보 활용 '동의란'에도 표시해야 한다. 참
가비는 전 종목 1만 원이다. 마라톤 참가
비 및 후원금은 산마루교회 노숙인들의
자활을 돕는 농지마련에 사용된다.

거북이 마라톤은 13일 오전 8시 동빙
고 근린공원(구 골프장 주차장) 집결, 오
전 9시 예배와 개회식, 10시 한강이촌공
원 마라톤 대회 순으로 진행된다. 10km
달리기는 한강이촌공원과 동호대교를
지나 복단침터에서, 5km 걷기 및 달리기
는 한강이촌공원을 지나 한남대교에서
반환점을 돌아 출발점으로 돌아오는 코
스다. 참가자들에게는 마라톤기록측정
지(5km 걷기 제외), 완주기념메달 등이
증정된다. 이날 동빙고 근린공원(구 골프
장 주차장)에서는 성인 공동체(성동광
진, 이수, 서빙고, S브릿지, 감서, 동작)가
준비한 자선장도 열릴 예정이다.

문의: 02-3215-3744

오늘은 대중교통 이용하는 주일

오늘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일이
다. 대중교통 이용하는 주일은 환경을
아끼고 이웃을 사랑하는 캠페인이다. 교
회 주차장은 사전에 스티커를 발부 받은
차량만 이용할 수 있다. 오늘 서빙고 온
누리교회 이전만광장에서는 환경 캠페
인이 이어진다. 사회선교부 생명과 환경
팀이 (재)녹색미래와 함께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는 '자원순환 마을 만들
기' 체험행사를 연다. 교회 쓰레기 지도
그리기, 재활용 플라스틱과 캔 등을 이
용해서 다육화분과 향초 만들기 등의 프
로그램을 진행한다.

강종도 팀장(사회선교부 생명과 환경
팀)은 "이번 환경 캠페인을 통해 교회가
환경을 더욱 사랑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온누리 부흥축제 '바른성공' 참가자 모집

10월 24~26일, 주강사 데이비드 플랫 목사

온누리 부흥축제 '바른성공' 참가자를 모집
한다. 온누리교회 홈페이지(www.onnuri.org)
나 주일 로비에 설치되는 안내데스크에서 신
청하면 된다. 회비는 10월 14일까지 사전등록
하면 1만 원, 이후 2만 원이다. 당일등록도 가
능하다.

온누리 부흥축제 '바른성공'은 10월 24일부
터 사흘 동안 서빙고 본당에서 막 오른다. 오
전 10시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진행된다. 주
강사는 데이비드 플랫 목사(맥린바이블교회
담임)이다. 데이비드 플랫 목사는 10월 24일
오전 '교회 안에서의 성공 1', 저녁 '기만과 속

임의 위험', 25일 오전 '교회 안에서의 성공 2'
, 저녁 '변영의 우상', 26일 오전 '교회 안에
서의 성공 3', 저녁 '선교의 긴급성'을 주제로
메시지를 전한다. 데이비드 플랫 목사는 지난
2013년 부흥축제 강사로 초청된 바 있고, <래
디컬>, <래디컬 투게더>, <카운터 컬처>, <팔로
우 미>(두란노) 등의 저서가 있다.

문의: 02-3215-3354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People

만나고 싶습니다

마치 곱게 늙은 귀부인 같았다. 은실로 짠 것 같은 백발에 꽃무늬 원피스를 입은 모습이 영락없는 부잣집 노부인처럼 느껴졌다. 이춘애 권사(90세, 서빙고공동체)의 첫인상이 그랬다. 그러나 북한 사투리가 배어있는 말투로 담담하게 자신의 인생을 말하는 이야기 속에는 결코 곱고 순탄한 삶이 없었다. 짜장면 한 그릇, 아이스케키 하나 사 먹지 못할 정도로 가난했다. 가난을 이기려고 쉬는 날도 없이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억척스럽게 일했다. 누구보다 억척스럽고 치열하게,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았다. 그렇게 어렵게 일군 재산의 일부를 기쁜 마음으로 교회에 기부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하나님께 받은 것을 다시 드리는 것이니 아깝지 않아요”

살던 집 팔아 온누리청소년센터 재건축 도운 이춘애 권사

이춘애 권사에게 지난 9월 19일은 잊지 못할 날로 기억됐다. 그날은 온누리복지재단 산하 시설 온누리청소년센터 준공감사예배를 드린 날이다. 이춘애 권사에게 이 날이 특별한 이유가 있다. 이 권사가 살던 집을 팔아서 기부한 현금을 온누리청소년센터를 재건축하는데 보탬이 때문이다.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밭을 팔아 교회에 기부한 레위족 사람 ‘바나바’(위로의 아들이란 뜻)처럼 기쁨과 은혜로 기꺼이 바쳤다. 액수는 밝히지 말아달라고 했지만 집 값 비싸기로 유명한 서울 아파트 한 채 가격이다. 이 권사에게 조금도 아깝지 않냐고 물었다. “나는 하나님께 너무 많은 것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받은 것을 다시 드리는 게 어떻게 아깝겠어요?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억척스럽고 치열하게,
성실하고 정직하게**

이춘애 권사는 올해 구순(九旬, 90세)이다. 고향은 평안남도 순안이다. 21살에(1950년) 남한으로 피난 왔다. 당시 이 권사는 순안에서 이모가 있는 평양으로 잠시 피신을 한 상태였다. 징집 명령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여자도 군대를 가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무섭고 군대도 가기 싫어서 평양으로 나왔어요.”

잠시일 줄 알았던 피신이었는데 그것이 사랑하는 가족과 영영 헤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고향 집에 어머니와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결국 다시는 만나지 못한 채 이모랑 오빠와 함께 남한으로 피난 오게 됐어요. 아버지는 나중에 따로 피난 내려오셨고요.”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졌지만 슬픔에 잠길 시간조차 없었다. 산 사람은 살아야 했기 때문이다. 1954년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은 큰아들을 시댁에 맡기고 남편과 함께 서울로 올라왔다.

“단돈 3천원 들고 서울로 올라왔어요. 그때부터 먹고 살기 위해 안 해 본 일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리어가 행사도 했고요. 머리에 무거운 짐을 이고 오르막길을 오르내리기도 했어요.”

1950~60년대 한국은 정말 못 살았다. 이춘애 권사는 그 가난 속에서도 빚지지 않고 살려고 죽도록 노력했다.

“지금은 그 흔한 짜장면도, 아이스케키도 못 사먹었어요. 배추도 값이 싼 걸워서구만 사

다 먹었고요. 그래도 남에게 외상 한 번 지지 않고 살았어요. 돈이 없어 굶주릴 때도 많았지만 남한테 빌리지 않았습니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아이들을 먹이고 입혔어요. 나는 나쁜 것을 쓰더라도 다른 사람한테는 좋은 것을 주려고 노력했지요.”

삶은 궁핍하고 고단했는지언정 정말 최선을 다해 일했다. 갖은 고생과 실패, 가난이 이어졌지만 남의 것에 욕심 부리지 않고 살았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려고 부단히 노력했다.

1960년 이 권사는 남편과 함께 고무공장을 시작했다. 이때도 정직과 신용을 지키려는 이 권사의 신념을 꺾지 않았다.

“공장을 하면서도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동업하다 실패하고, 공장에 불이 나기도 했고요. 그래도 좌절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2시까지 정말 죽기 살기로 일했어요. 직원들 월급날도 단 한 번도 어긴 적 없었고요. 약속과 신용을 철저히 지켰어요.”

그렇게 정직하고 열심히 산 것이 조금씩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 한 개였던 공장을 세 개로 늘릴 정도로 사업이 번창했다. 공장 운영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남편과 편안히 살날만 남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불행이 닥쳤다. 함께 고난을 헤쳐 온 남편이 53세 이른 나이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것이다.

하늘처럼 밟고 의지한 남편을 잃은 슬픔은 생각보다 컸다. 빈자리가 너무 컸다. 상실감과 헛헛함을 채워준 것은 다름 아닌 신앙이었다.

“앞만 보며 열심히 일해서 이제 조금 편히 살겠거니 했는데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 상실감을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그때 십자가가 눈에 보이더라고요. 제 발걸음이 저절로 교회로 향하더라고요.”

이춘애 권사는 교회에 대한 마음은 있었지만 제대로 다니진 못했다. 주일에도 공장을 열어야 했기 때문이다. 조금이라도 공장을 더 키우고, 남들 사는 것처럼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컸다. 그러나 남편과 사별한 이후 이춘애 권사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 열심히 운영해 온 공장을 정리해서 동업자와 아들에게 분배했다. 오로지 교회와 집을 오가는 것이 그녀의 삶의 전부가 되었다. 새벽기도도 하루도 빼먹지 않고 다니고 있다.

“하나님 믿고 나서 모든 것이 평안해졌어요. 남편 잃은 슬픔도 치유됐고, 하늘나라 백성으



바나바처럼 자신의 소유를 교회에 기부한 이춘애 권사와 온누리청소년센터에서 받은 감사패.

로 구원도 받았어요. 집안에도 아픈 사람 하나 없고, 나보다 먼저 간 자식들도 없었고요. 아들들도 제 갈길 찾아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새벽기도하면서 나라와 교회, 온누리청소년센터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 빛이 많아요”

이 권사는 하늘나라 백성으로 구원받은 감격, 믿음 생활하는 기쁨과 감사를 되새기며 남에게 베풀고 싶었다. 그래서 2009년 살던 집을 교회에 기증했다. 부디 좋은 일에 쓰이기만 바랐다. 그 헌신이 드디어 올해 빛을 발했다. 이 권사가 기부한 집을 팔아 온누리청소년센터 재건축비용으로 보탬다.

“집을 흔쾌히 기부하게 된 것은 아들 덕분이예요. 아들이 먼저 교회에 기증하자고 했거든요. 아들이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어미의 생각에 힘을 보태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이춘애 권사는 90세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정정하고 꼳꼳하다. 집안일도, 취미인 화초 가꾸기도, 교회 봉사도 스스로 한다. 이 권사는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다. 이 권사의 입술에서는 감사의 말이 끊이지 않고 나왔다.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만으로도 마냥 감사한 마음이 들 정도였다.

“남을 사랑하며 착하게 살아야 해요. 남한테 무언가를 줄 때는 좋은 것을 주고, 누가 오면 물 한잔이라도 대접해야 합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나는 하나님한테 많은 걸 받았다는 거예요.”

이 권사는 오늘이라도 하늘나라 가고 싶다고 했다. 노인들이 흔히 말하는 빨리 죽고 싶다는 푸념이 아니다.

“누군가 그랬어요. 장사 중에 ‘예수 장사’가 가장 낚는 거라고요. 인생을 돌아보니 그 말이 정말 맞더라고요. 제가 남한테 빚지지 않고 살아왔다고 했잖아요? 저는 하나님께 빛이 많아요. 하나님께 너무 큰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여한 없이 오늘이라도 하늘나라에 가고 싶어요.”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미국 LA에서 사역하시는 강준민 목사님께서 쓰신 <감사는 숲을 담은 씨앗입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는 강 목사님 목회 여정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기를 보내면서 가장 쓰고 싶었던 주제가 감사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때로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고통 속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태도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감사뿐”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년을 옥중에서 보내면서 여러 편지를 썼는데 그 내용이 모두 감사였습니다. 빌립보서는 빌립보 성도들의 헌신과 헌금, 사랑에 대한 감사편지이고, 골로새서도 감사편지입니다. 편지의 주제는 ‘모든 것 위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 이지만 편지 전반에 스며있는 영성은 감사입니다.

참된 믿음의 열매 ‘감사’

“우리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여러분의 사랑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골 1:3-4).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영접한 것처럼 주 안에서 사십시오. 여러분은 주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으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게 하십시오”(골 2:6-7).

이 말씀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감사함이 넘치는 것으로 끝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생명의 씨앗이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떨어지는 것은 깊이 뿌리 내려야 합니다. 나무의 생명은 뿌리에 있습니다. 뿌리의 상태가 그 나무의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뿌리가 건강하지 않으면 나무는 자라지 않고 자라더라도 열매가 없습니다. 뿌리 내려 자랐는데 뿌리가 나쁘면 그 나무의 열매는 불평과 원망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병든 뿌리가 맺는 열매입니다. 주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고, 믿음에 굳게 선 성도는 감사가 넘칩니다. 믿음은 감사와 정비례합니다. 참된 믿음의 열매는 감사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위해 여러분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

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십시오. 모든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말미에 일한 모든 것을 하든지 그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십시오”(골 3:15-17).

감사라는 단어가 세 번씩 나옵니다. 주 안에 깊이 뿌리 내려 믿음 안에 굳게 선 모습이 감사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는 감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은 나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믿음의 대상으로부터 시작하고, 믿음의 대상을 위하여 결정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견고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신 그분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성품과 행하심이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생겨난 믿음은 시험을 통해 견고해지고 성장합니다. 믿음의 대상이신 그분으로부터 내 안에 믿음이 시작되었다면 시험을 통해 내 안에 형성되어 가고, 자라가고,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시험을 통과하지 않은 믿음은 결코 굳센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이 있을까?’라는 의문을 던질 필요가 없습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이고, 그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적절한, 필사적인, 충분한 믿음

믿음이 긍정적으로 성장하는 단계를 기독교 철학자 달라스 윌라드는 세 단계로 구분했습니다. 첫째 적절한 믿음(Faith of Propriety), 둘째 필사적인 믿음(Faith of Desperation), 셋째 충분한 믿음(Faith of Sufficiency)입니다. 이 세 단계의 믿음은 그 자체로 옳은 믿음입니다. 시험을 통해 이 세 단계를 경험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욥입니다. 욥은 모든 것을 상실하는 시험을 겪었습니다. 그때 욥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욥은 ‘적절한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엄청난 상실 속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것을 여호와께서 가져가시니 여호와와 이름이 찬양받으시기를 바랍니다”(욥 1:21).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이 고백과 믿음은 적절한 믿음입니다. 적절하다는 것은 사실을 사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적절한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태도입니다. 시험이 왔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상실된다 할지라도 주신 분이 여호와이니 취하신 분도 여호와시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욥에게 더 큰 고난이 닥쳐왔습니다. 욥의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났습니다. 건강이 무너지는 시험입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욥의 건강에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단계에서 욥의 건강이 무너졌습니다. 그러자 욥의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친구들은 욥에게 죄가 있을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분이 나를 죽이신다 해도 나는 그분을 신뢰할 것이네”(욥 13:15a).

욥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깊은 절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지점에서 욥은 ‘필사적인 믿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으로 내려가야 진짜 믿음이 나옵니다. 모든 것이 흔들리고 무너져 내리는 상황에서 무엇을 믿고 있느냐가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모든 것을 흔듭니다. 이러한 시험 속에서 필사적인 믿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욥은 적절한 믿음과 간절한 믿음도 보였습니다. 그런데 욥은 계속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에게는 적절한 믿음도 있었고, 간절하고 필사적인 믿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평과 원망이 나왔습니다. 그의 믿음은 충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믿음의 시험이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버티고 견디는 믿음이 아닙니다. 마땅히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깊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이 아닙니다. 충분한 믿음과 감사가 넘치는 믿음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충분한 믿음의 증거가 바로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의 이유를 하나도 설명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거기 있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욥의 고난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안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때 욥은 세 번째 믿음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욥 42:5-6).

욥은 시련을 자신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겼습니다. 자신의 고통과 문제로부터 하나님을 바라보는 비전으로 옮겨졌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회개할 것이 있는가?’ 하는 의로운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회개할 것이 얼마나 많은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믿음의 단계로 들어갑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의 믿음

얼마 전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의 생애에 대한 책을 읽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는 세계 선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라고 말할 수 있는 분입니다.

‘중국의 은인’이라고 불린 그는 1905년 73세로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후난성에서 헌신했습니다. 그분이 헌신한 ‘중국내지선교회’가 오늘날 ‘OMF’라는 선교회로 이어졌습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의 가장 중요한 선교 원칙은 ‘믿음 선교’입니다. 문자 그대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도움 요청도 하지 않았습니다. 편지조차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으니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놀라운 기적의 공급하심이 계속되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믿음사역에 철저했는지를 보여주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분이 병원에서 조수로 일을 하게 됐는데 원장이 자주 잊어버리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월급날이 되면 꼭 내게 말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월급을 못 줄 수도 있다”면서 신신당부를 했는데 월급날이 되어도 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원장을 깨우쳐 주시도록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으니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라는 허드슨 테일러의 믿음은 적절한 믿음입니다. 또 필사적인 믿음입니다. 그는 필사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단계까지 충분한 믿음을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세 번째 단계 믿음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충분한 믿음은 고통 속에서 드러났습니다. 중국에서 한참 열매 맺고, 교회가 성장하는 동안 8살 된 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허드슨 테일러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13면에 계속)

온두라스를 중남미의 제사장 나라로!

9월 25일부터 30일까지 '온두라스 성경의 날' 행사 참여
7일 동안 이어진 집회, 15만 명 운집, 경찰들의 회개도

전 국민의 90%(기독교 48%, 가톨릭 42%)가 하나님을 믿는 나라. 법으로 매년 '성경의 날'을 정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 공교육 과정에 성경을 도입하려는 나라. 이토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라가 또 어디일까. 바로 중남미에 있는 온두라스(Honduras)다. 온누리교회와 HTM(Heavenly Touch Ministry)이 지난달 25일부터 29일까지 온두라스의 수도 테구시갈파(Tegucigalpa)에서 13번의 집회에 참여했다. 성경의 날이었던 지난 30일(주일)에는 무려 15만 명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렸다. 온두라스를 중남미의 제사장 나라로 선포하는 역사적인 현장에 다녀왔다.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지난 9월 30일 테구시갈파에서 열린 성경의 날 집회에 참여하기 위해 행진하는 온두라스 성도들.

온두라스는 한국과 참 많이 닮았다. 국토 면적도 비슷하고(한국 100,363㎢, 온두라스 112,090㎢) 산간지역도 많다. 특히 우리나라 역사와 참 많은 부분이 닮았다. 온두라스는 스페인의 침략을 당해 식민지 생활을 겪었고, 군부로 인해 큰 고통을 겪었다. 오랜 분쟁 끝에 민주주의를 이룩한 나라이기도 하다.

한편 온두라스는 참 위험한 나라다. 수많은 사회적 문제를 겪고 있다. 갱들의 분쟁으로 폭력과 살인이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마약문제도 심각하다. 세계에서 살인율이 두 번째로 높은 나라이기도 하다. 경제적 상황도 좋지 않다. 1인당 GDP 약 2,609달러에 불과한 최빈국이다.

세상의 눈으로 온두라스를 바라보면 문제가 너무 많은 나라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 어느 나라보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

온두라스는 1987년부터 법으로 매년 9월 마지막 주일을 '성경의 날'로 제정했다. 온두라스 국민들은 이날을 기념하며 전국에서 성경의 날 일주일 전부터 세미나와 집회를 개최한

다. 그 모든 행사를 국가가 주도한다. 온 국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자 목표이다.

중남미 지역은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영향으로 가톨릭 인구가 대다수다. 하지만 온두라스는 기독교 인구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15년 전 10%이었던 온두라스 기독교 인구가 현재 48%에 이를 만큼 그 수가 급증했다.

이동규 장로와 온누리교회 '성경의 날 행사' 주축이 되다

온두라스 성경의 날 주간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간이다. 그 기간이 올해는 더 뜻 깊었다. 온누리교회와 HTM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온두라스 수도인 테구시갈파에서 성경의 날 행사를 주관했기 때문이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온누리교회와 HTM이 어떻게 온두라스 성경의 날 행사에 참여할 수 있었을까? 이동규 장로(S브릿지, LOL leaders 대표)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 역할을 했다.

이동규 장로는 2016년 12월 온두라스에 태양광 발전기를 만들어 보급하는 수백억 원대의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경쟁한 기업들과 경

쟁을 해서 당당하게 수주를 따낸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자 기적이었다. 이동규 장로는 사업의 성공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또 물었다. 역시 하나님의 뜻은 단순히 돈을 벌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온두라스의 변화였다.

온두라스에는 10만 가구가 빛도 없는 곳에서 생활하고 있다. 산이 많은 온두라스는 지역적 특성 때문에 전기시설을 갖추는 것이 쉽지 않다. 이동규 장로가 온두라스에서도 가장 열악한 지역에 가정용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했을 때였다. 마을 이장이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까지 산 속에서 빛도 없이 짐승처럼 살았는데 빛이 생기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흐느꼈다. 그때 이동규 장로는 마음이 가난해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효과가 엄청날 거라고 확신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자 계획임을 깨달았다.

이동규 장로가 사업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고 실천할 무렵 온두라스 기독교협의회를 알게 되었다. 온두라스 기독교협의회는 이동규 장로의 복음전파 계획을 신뢰하고, 이해하며, 동역하기를 원했다. 그 과정에서 온두

라스에서는 매년 9월 성경의 날 행사를 열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동규 장로와 온두라스 기독교협의회는 성경의 날 행사를 협의할수록 서로에 대한 신뢰가 더 쌓였다. 온두라스 기독교협의회에서 이동규 장로에게 올해 성경의 날 행사를 주관해달라고 부탁할 정도였다.

또한 온두라스 기독교협의회는 각 교단 대표들이 모이는 교단 총회에서 본인들의 설명으로는 이번 행사의 취지와 의미를 충분히 알릴 수 없으니 이동규 장로가 직접 참석해서 설명해 줄 것을 요청했다. 주저할 필요가 없었다. 이동규 장로는 교단 총회에 참석해서 그동안의 과정을 설명하면서 각 교단에게 성경의 날 집회에 참석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각 교단은 이번 행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순종했다.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한마음으로 온두라스를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겠다는 소망을 품었다.

집회를 진행할 강사부터 섭외해야 했다. 이동규 장로는 HTM 손기철 장로, 알바인 온누리교회 권혁빈 목사와 박신웅 목사, 뉴저지 온누리교회의 마크 최 목사, 양지 온누리교회 도육환 목사, 2000선교본부 손정훈 목사를 초청했다. 이상진 목사와 워십하우스팀도 초청했다. 여기에 CGNTV, 미주 두란노서원, NGO 더멋진세상이 협력해서 융합선교의 장을 펼쳤다.

이동규 장로는 이번 행사를 추진하면서 관련부처 장관들도 만나게 됐다. 이동규 장로는 올해 5월 3일 온두라스 대통령 초청 국가를 위한 기도모임에 참석한 유일한 외국인이다. 그 자리에서 이동규 장로의 계획을 들은 온두라스 대통령과 영부인이 큰 감동을 받았고, 5월 11일 대통령과 단독면담도 했다. 그 자리에서 온두라스 대통령은 올해 열리는 성경의 날 집회에 모든 협조와 지원을 약속했다.

폭우도 막지 못한 열정이 한 청년의 구원을 이끌다

온두라스 성경의 날 주간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 이동규 장로와 온누리교회, HTM 소속 스태프 74명이 몇 달 전부터 만반의 준비를 했다. 특히 이상진 목사와 워십하우스팀은 온두라스 성도들이 좋아하는 찬양을 스페인어



왼쪽 시계방향으로 중앙학교에서 열린 집회, 경찰 합동집회, 한국팀을 반기는 현지 교회 어린이들, 성경의 날 집회에서 예수님을 따라한 청년, 학생들을 축복해주는 선교사.

로 부르기 위해 3개월 동안이나 연습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땀방울로 준비한 집회가 바로 지난달 25일부터 30일까지 막 올랐다.

그야말로 천국잔치였다. 목회자 세미나, 연합집회, 전국방송 설교, 연합예배, 중고등학생 집회, 군경소방 연합예배, 군장교 연합예배, 야외집회, 청년예배 등 한 주 동안 끊임없이 예배를 드렸다. 그만큼 은혜도 풍성했다.

성경의 날 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9월 25일 저녁에는 35개 교회가 연합집회를 개최했다. 야외 운동장에서 집회를 하기로 했는데 집회 2시간 전부터 폭우가 쏟아졌다. 미리 도착한 찬양팀은 리허설조차 할 수 없었다. 설상가상 야외 운동장이 진흙탕으로 변했다. 집회 시작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비가 멈추지 않았다. 스크린과 앰프가 젖어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 주변 마을전체에 정전사태도 발생했다. 현지 목사들은 집회 준비와 안전 문제를 걱정하면서 집회를 취소하자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야외 운동장에서는 50여명의 성도들이 비를 맞으며 찬양과 기도를 이어가고 있었다. 이 모든 소식을 들은 이동규 장로는 집회에 오는 단 한사람을 위해서 육성으로라도 진행을 하자는 의견을 냈다. 다행히 비상발전기를 돌려 마이크는 쓸 수 있었다. 숙소에서 나머지 팀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손을 잡고 기도했다. 날씨에 대한 기도를 소홀히 한 것을 회개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맑은 날씨를 허락해달라고 간구했다.

이동하는 동안에도 비가 그치지 않았다. 그런데 한국팀이 운동장에 들어서자마자 비가 그쳤다. 현장에 있던 온두라스 성도들이 박수를 치면서 기뻐했다. 그 집회에서 구원을 받은 청년이 나왔다. 집회가 열린 야외 운동장은 마을 근처에 있었다. 손기철 장로가 집회를 3시간 정도 인도했다. 집회 마무리 설교를 하면서 구원 받은 자들을 무대로 불렀다. 그때 한 청년이 무대로 걸어 나왔다. 마이크를 잡은 청년

은 “사실 나는 집회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집에서 TV를 시청하다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 소리는 야외 운동장에서 들리는 설교였다. 청년은 그 소리를 계속 듣다가 가슴이 뜨거워져 달려 나왔다고 고백했다.

온두라스의 미래를 변화시킬 다음세대의 마음을 훔치다

성경의 날 주간 열린 모든 예배와 집회들이 중요했지만 중점을 둔 부분이 있었다. 온두라스 청소년들을 위한 3번의 예배였다. 온두라스는 현재 마약과 갱문제가 심각하다. 문제는 학생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다. 중고등학생들 중에도 이미 갱단에 가입해 활동을 하고, 마약에 손대는 청소년들도 존재한다. 몰래 총기를 소유한 청소년들이 있어 학교에서도 제지하지도 계도하지도 못하는 실정이다. 누군가는 이 연결고리를 끊어야 했다. 그래서 온두라스 정부는 공교육 과정에 성경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아직 국회의 협의가 끝나지 않아 발효 되지 않았지만 이것이 성사된다면 전무후무한 일이 될 것이다.

온두라스 청소년들의 마음에 믿음의 씨앗을 심는 역할을 한국팀이 맡았다. 중앙학교, 사울 셀라야 공립학교, 아갈라르 빠스 공립학교에서 진행된 집회는 청소년들의 회복을 위한 예배였다. 찬양팀이 스페인어로 찬양을 시작하자 청소년들이 무대 앞까지 뛰어 나와 찬양했다. 한국 목회자들이 말씀을 전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를 권면하자 눈물을 흘리는 많은 청소년들이 있었다. 3번 진행된 학교예배는 온두라스의 미래를 변화시킬 다음세대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훔치는 자리였다.

온두라스 기독교 역사의 획을 긋는 자리도 마련됐다. 온두라스 수도인 테구시갈파 초치

소나 야구장에서 열린 ‘제1회 경찰대각성운동’ 합동 집회가 그 현장이었다. 경찰 2만 명이 참석한 그 집회에서 경찰들은 “우리는 새로운 경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온두라스를 위해 새 역사를 쓸 것입니다”를 외치며 회개했다. 경찰 간부들도 선서하며 “앞으로는 전혀 다른 경찰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며 단채로 회개했다.

그들의 회개는 단순히 회개가 아니다. 온두라스의 상황을 알면 엄청난 대각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온두라스는 오랜 내전과 분쟁, 군부의 독재로 공권력의 힘이 커질 대로 커졌다. 또한 폭력과 살인, 마약문제로 끝없는 범죄와의 전쟁을 치루고 있다. 그 과정에서 경찰이 갱들과 연합해서 마약 단속을 하지 않거나 마약 운반을 눈감아 주는 대신 돈을 받는 부정 부패가 빈번하다. 과잉진압이나 과도한 공권력 사용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 온두라스 경찰들이 이와 같은 과오를 반성하며 앞으로는 온두라스를 위한 새로운 경찰이 되겠다고 선언하는 모습이 온두라스 전국에 생방송되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로헤르 알베르토 경감(경찰 안보부)은 다니엘의 회개 기도를 온두라스 경찰들이 마음에 새기기를 소망했다.

“과오를 인정하고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에게 고백한 대로 새로운 시작을 하며 앞으로 국민에게 신뢰 받는 경찰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라 하나님은 온두라스를 사랑하신다”

지난 9월 30일 대망의 ‘성경의 날’ 집회가 열렸다. 온두라스 수도 테구시갈파에는 무려 15만 명이 운집했다. 집회장 인근 왕복 6차선 도로를 통제하고, 중간 중간에 대형 스크린을 설치해서 수많은 인원이 집회 실황을 볼 수 있도록 준비했다. 집회에 참석하는 성도들은 집

회장에서 7km 떨어진 스타디움에서 모였다. 그들은 각양각색의 성경 속 인물, 스토리에 관련된 의상들을 입고 집회장까지 행진했다. 예수님을 찬양하며 걸어오는 모습은 감동 그 자체였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 같았다. 이날은 모든 교회와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하나 되는 날이었다. 사실 전에는 명목상 연합이라는 의미만 있었는데 기독교연합회장과 이동규 장로가 함께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 실질적인 연합이 이뤄진 것이다. 올해 온두라스 성경의 날 주간 집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준비한 덕분인지 지난해보다 참석인원이 5만 명이나 많았다.

오후 1시부터 집회가 시작됐다. 워십하우스 팀이 스페인어로 찬양을 시작하자 분위기가 최고조에 이르렀다.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기뻐 뛰며 춤을 추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온두라스 성경의 날 집회에서 메시지를 전한 권혁빈 목사, 마크 최 목사, 손기철 장로의 말씀은 달랐지만 주제는 하나였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라. 하나님은 온두라스를 사랑하신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 온두라스는 앞으로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온두라스의 국기를 보면 5개의 별이 있다. 5개의 별은 중남미를 상징한다. 중앙이 온두라스고 왼쪽 위 시계방향으로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 니카라과를 의미한다. 우리는 앞으로 온두라스가 중남미의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기도하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 온두라스가 먼저 변화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전 세계가 복음화 되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협력해야 한다. 2018년 온두라스 ‘성경의 날’ 행사는 끝났지만 또 다른 시작이다. 온두라스가 중남미의 제사장이 되는 그날 말이다.

오늘은 CGNTV 정기후원 약정행사

나, 가족, 이웃, 동료와 함께한다면 CGNTV 5만 명 후원자의 꿈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CGNTV 5만 명 후원자가 세워진다면 더 많은 나라와 사람들에게 더욱 풍성한 양질의 기독교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뜻 깊은 일이다. 이미 CGNTV 후원자 5만 명 달성을 위하여 애쓰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혼자만의 후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개인, 가족, 동료들에게 CGNTV 후원자가 되어줄 것을 권하고 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나, 가족, 이웃, 동료와 함께



조경희 성도



이승영 성도



최신애 성도

오늘(7일) 실시되는 CGNTV 정기후원 약정사에서 후원자 5만 명 달성이라는 하나님의 꿈이 꼭 이뤄졌으면 좋겠다.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 가족, 동료가 함께한다면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그 방법도 쉽고 단순하다. 아직 CGNTV를 후원하지 않는 성도들이 후원에 동참하고, 가족, 이웃, 동료들에게 CGNTV 후원자가 되어 줄 것을 권하면 된다.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이웃, 동료들이 함께 CGNTV 후원자가 되면 달콤한 열매가 또 있다. CGNTV를 후원하는 것 자체가 전도이자 선교이기 때문이다.

내가 바로 CGNTV '한 영혼'의 주인공

CGNTV 후원자 조경희 성도는 잘 나가는 유치원 교사이자 과외 강사였다.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그녀에게 어느 날 뜻하지 않은 위기가 찾아왔다. 중학생이 된 딸이 학교가 지옥 같으면서 등교를 거부했다.

“나름 알아주는 과외 강사였어요. 그런데 제 딸 하나 돌보지 못했다는게 정말 충격이 있었어요. 딸은 결국 학교를 그만뒀고 저도 모든 사회생활을 멈췄어요. 홈스쿨을 하면서 딸을 돌봤어요.”

조경희 성도는 당시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수차례 물었지만 아무런 대답을 들을 수 없었다. 점점 영적으로 갈급해져갔고,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들었다. 그 위기의 순간 우연한 기회에 CGNTV를 보게 됐다. 그리고 CGNTV를 통해 생명수를 공급받기 시작했다.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지 몰라 가슴 치는 나날을 보내던 그녀에게 CGNTV는 한 줄기 빛이었다.

“CGNTV 슬로건이 ‘한 영혼을 위해 더 멀리 더 가까이’잖아요? 그 주인공이 바로 저와 우리 가족이에요.”

그녀가 회복될 수 있었던 결정적 요인은

말씀이었다. CGNTV에서 방영되고 있는 체계적이고 균형 잡힌 말씀 관련 프로그램이 그녀를 회복시켰다.

조경희 성도와 딸은 완전히 회복됐다. 지금은 그때 받은 은혜를 딸과 함께 말씀이 갈급한 이들에게 되돌려주고 있다. 조경희 성도는 그룹회를 운영하면서 7명의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 딸은 번역가가 되겠다는 꿈을 품고 일어, 영어, 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 조경희 성도는 적은 금액이지만 평생 CGNTV의 후원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지금까지 후원을 이어오고 있다. 틈이 날 때마다 이웃들에게 CGNTV를 추천하는 것도 잊지 않고 있다.

'가족의 이름으로' 믿음의 씨앗을 심는다

온 가족이 함께 CGNTV를 후원하는 이들도 많고, 가족의 이름으로 CGNTV를 추가 후원을 하고 있는 이들도 있다. 후원금을 증액하고 싶으면 후원금만 올리면 그만인데 왜 굳이 가족의 이름으로 추가후원을 하는 것일까? 이승영 성도가 그 이유를 설명했다.

“아들 이름으로 CGNTV를 후원을 하게 된 건 아들에게 정말 귀한 선물을 해주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아들에게 믿음의 씨앗을 심어주고, 선교가 무엇인지 알려주는데 이보다 좋은 방법이 없다고 확신하거든요.”

이승영 성도는 그래서 적은 금액이지만 CGNTV 정기후원을 시작했다. 후원하는 금액이 적어서 늘 증액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아들이 유학을 갔다. 품을 떠나는 아들의 신앙생활이 걱정돼서 성경책도 선물하고, 여러 차례 당부도 했지만 쉽게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그때 올봄 ‘CGNTV 5만 명 후원자 비전’을 듣고 무릎을 쳤다.

“아들한테 ‘네 이름으로 CGNTV를 후원하겠다’고 했더니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아직 아들의 신앙이 미성숙한데 CGNTV 후원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CGNTV 후원을 통해 믿음의 씨앗을 심어주는 거죠. 그 믿음의 씨앗이 건강하게 자라서 울창한 숲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을 위하여 동료와 함께 'CGNTV의 사명' 응원

직장 동료들에게 CGNTV를 적극 소개하고 후원을 독려하는 성도도 있다. 헤드헌팅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최신애 성도가 그 주인공이다. 그녀는 크리스천 동료 여러 명과 함께 CGNTV를 후원하고 있다.

“저희 회사 직원들도 CGNTV를 후원하고 있어요. 처음에 회사 이름으로 CGNTV를 후원했는데 몇몇 직원들이 CGNTV가 뭔지 물어보기에 소개를 해줬죠. 늘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CGNTV를 알릴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만하면 제가 CGNTV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겠죠?”

최신애 성도가 CGNTV를 이토록 사랑하는 이유가 있다. CGNTV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천들에게 정말 좋은 길잡이가 되어주기 때문이다.

“세상 속에서 살면서 신앙을 지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신앙이 흔들리고 방황하기 너무 쉬워요. 그럴 때마다 CGNTV가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또한 미디어 선교가 정말 중요해진 시대인데 CGNTV가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동료들과 함께 CGNTV를 응원하고 후원하는 일에 적극 참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호 소 문

온누리교회에서 먼저 5만 명 후원자가 세워진다면

첫째, 미디어를 통해 다음세대와 비기독교인들에게도 다가갈 수 있습니다.

주일학교가 없는 한국 교회가 50%에 달하고 반기독교세력, 이단, 동성애 등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혼탁한 시대상황을 바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슬람권, 사회주의권, 불교권 등 타문화권을 위한 한인선교사들이 노령화되고 있습니다. 시공간과 대상을 초월하는 미디어선교가 대안입니다. CGNTV는 '재미와 감동'을 넘어 차세대와 비기독교인들까지도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를 더 많이 만들어 보급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전도와 선교, 캠퍼스와 순(공동체) 부흥의 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도대상자들을 선정해 1년간 CGNTV 정기후원 약정을 해주고, CGNTV 콘텐츠를 시청하게 해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CGNTV 콘텐츠를 정기적으로 제공받아 각 캠퍼스들과 순(공동체) 모임에서 활용한다면 나눔이 더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안정적인 방송 시스템을 갖출 수 있습니다.

보통 방송 시설의 교체 주기는 5~7년입니다. CGNTV에는 8년 넘는 장비가 40%에 달합니다. 시청률 1위인 CGNTV의 임금 수준은 기독교방송 5개사 중 최하위입니다. 헌신되고 탁월한 미디어사업자들이 더 많이 보강돼야 합니다. 현재 여섯 군데에 흩어져 근무하는 CGNTV 직원들이 언젠가는 한 사옥에서 함께 근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넷째, 순수 후원으로만 운영되는 '기적의 행진'을 계속 써갈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비즈니스를 하면 일부 재정은 충당될지 모르지만 광고주나 특정인(그룹)에 휘둘릴 수 있습니다. CGNTV를 CGNTV답게 만드는 건 여러분의 손길입니다.

지금의 후원만으로는 상기 목표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기존 후원자는 매월 1만 원 이상 증액을 해주시고, 아직 후원하지 않는 자녀들이나 손자·손녀들이 있다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매월 1만 원 이상 후원자가 되도록 앞장서 주십시오. 기존 후원자가 각 1명씩 후원자를 더 세우면 '5만 명 후원자 시대'는 결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CGNTV 직원 모두 정기후원자입니다. 이들과 더불어 CGN행진을 쓰며 이 시대를 책임지는 미디어선교사가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상건 장로(CGNTV 운영위원장)

특집 한글과 기독교

기독교가 아니었다면 한글보급도 없었다!

교회와 함께 한글 깨우치고 계몽운동과 민족운동까지

오는 10월 9일은 훈민정음이 반포된 지 572돌을 맞는 한글날이다. 세종 28년 반포된 한글은 한국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에게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도 등재되어 있다. 세계적인 언어학 석학들은 한글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알파벳”이라며 극찬한다. 사실 한글의 우수성은 익히 들어 잘 알고 있다. 그런데 한글과 기독교가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아는 이는 적다. 조선에서 잊혀진 한글을 다시 세상으로 꺼내 보급한 주체가 기독교다. 조선인들이 한글을 깨우치고, 계몽운동과 민족운동까지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 또한 기독교다.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모든 사람이 자신의 뜻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것이 바로 1446년 세종대왕이 ‘훈민정음(訓民正音)’을 반포한 이유다. 훈민정음은 말 그대로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의미다. 세종대왕은 누구나 문자를 쉽게 익혀 편안하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를 바랐다. 그래서 한글을 창제했다. 그런데 백성들에게 한글을 보급하는 일이 쉽지 않았다. 당시 기독교 총이었던 사대부들이 훈민정음 반포하는 것을 목숨 걸고 반대했기 때문이다. 한자를 사용하는 중국과의 유대관계가 깨질 것을 염려했고, 한자에 대한 지식수준으로 계급을 나누던 시대에 피지배계층이 문자를 사용하는 것을 위협으로 느꼈기 때문이다. 결국 한글은 피지배계층들이나 쓰는 ‘언문(諺文, 한글을 속되게 이르는 말)’으로 천시되었고 무려 450년 동안이나 역사 속에 묻혔다. 그 한글이 기독교를 만나면서부터 다시 빛을 발하게 됐다.

“종교적 은총뿐 아니라 민족혼의 세례도 받았다”

잊혀진 한글이 천민들의 문자에서 나뉘게 되기까지 한글성경 번역과 출판이 큰 영향을 미쳤다. 19세기만 해도 조선인들에게 한글은 큰 의미도, 인기도 없었다. 지식인들은 한문을 애용했고, 한글을 사용할 기회가 없는 서민들은 한글을 배울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그러한 시대에 1832년 칼 귀츨라프 선교사가 주기 도문을 한글로 번역하고, 1877년 로스 선교사와 서상륜, 이응찬, 백홍준 등이 한글 성서 번역에 착수한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1882년 최초의 한글 성서인 <예수성교누가 복음전서>, <예수성교요한복음전서>가 로스 목사와 이응찬을 비롯한 조선인들에 의해 만주에서 출간됐다. 1885년 <신약마가전복음서언해>가 이소정에 의해 일본에서, 최초의 신약성서인 <예수성교전서>가 만주에서 출간됐다. 만주와 일본에서 번역 및 출판된 한글 성경은 토착 전도인들에 의해 국내로 반입 및 반포되었다. 성경을 읽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였다.

한글은 문서사역 최고의 도구로 활약했다. 성경과 <천로역정>과 같은 기독교 문서, <조선크리스도인회보>와 같은 신문들이 한글로

발행되었다. 또한 선교사들이 소학, 중학, 대학 같은 교회학교나 개인 및 가족별로 성경을 가르치면서 꼭 한글을 함께 가르쳤다. 교회 성도 수가 증가할수록 한글을 아는 사람도 증가했다. 기독교가 한글보급에 앞장선 것이다. 1912년 한글학자 최현배는 서울에서 거행된 성서회관 봉헌식 기념강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공자, 맹자의 유교에 젖은 사람들이 한글을 언문이라 하여 멸시전대하고 있을 적에 기독교는 한글만으로 된 성경을 가지고 들어왔다. 그 교리가 전파하는 곳에는 반드시 한글이 전파되어 서로 인과하는 결과를 낳았다. 비로소 어리석은 백성이 쓰기 편하게 하고자 한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의 뜻이 실현되게 된 것이다.”

이처럼 기독교와 함께 한글이 보급되면서 수많은 변화들이 일어났다. 가장 큰 혜택을 본 계층은 여성이었다. 당시 여성은 남성의 통제와 관리를 받아야 하는 존재로 여겨졌다. 자유로운 의사표현은 꿈조차 꿀 수 없었다. 선교사들은 조선의 여성들에게 한글부터 가르쳤다. 한글을 깨우친 여성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복음을 받아들였고, 억눌렸던 자의식도 개발되었다. 선교부와 교회에서 운영하는 여학교들이 설립되면서 여성들의 문맹률이 급격히 낮아졌고, 자신의 의사를 밝히며 주도적인 삶을 살기 시작했다. 이는 사회관습의 억눌림으로부터의 자유요, 해방이었다.

한글과 복음전파는 애국심도 일깨웠다. 1911년 신·구약 한글판 <성경전서>가 인쇄되어 나온 그 해 일본의 식민통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일본어가 관공서는 물론 학교에서도 공적 언어가 되었다. 기독교를 만나 비로소 빛을 본 한글이 다시 멸절의 위기를 맞았다. 그때 한글을 지키고 수호하는데 앞장선 이들은 교회와 기독교인들이었다. 그들은 민족혼마저 깨웠다. 1919년 3.1 운동이 전국에서 일어났는데 그 주축이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와 교회였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한글학자 최현배는 다음과 같이 간증했다.

“학교에서 우리의 말글을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교사나 학생이 주일날 예배당에서는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찬송가를 힘차게 부름으로 말미암아 종교적 은총뿐 아니라 민족혼의 세례도 받았다.”

소중한 한글 올바르게 사용하기

이토록 소중한 한글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얼마나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을까? 문화체육관광부가 전국 만 15세 이상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언어생활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는데 응답자 39%가 “주변 사람들이 외국어나 외래어를 필요 이상으로 많이 사용한다”고 답했다. 대화 중에 외국어와 외래어가 무슨 말인지 모를 때가 있느냐는 질문에 61.2%가 “그렇다”고 답했다.

학생복 브랜드 ‘엘리트’가 실시한 ‘중고생 외국어, 외래어 사용 실태’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고생 10명 중 9명이 외국어와 외래어를 자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생 47%가 평소 외국어와 외래어를 많이 사용한다고 했고, 조금 사용한다는 비율은 4%에 불과했다. 외국어와 외래어를 자주 사용하는 이유로 ‘습관성’이 66%로 가장 많았고, ‘대체할 우리 말이 생각나지 않아서’ 24%, ‘세련돼 보여서’ 6% 순이었다. 한글보다 외국어와 외래어를 더 많이 접하는 때는 언제인지 물었더니 중고생 43%가 ‘노래 가사 속’이라고 응답했다. ‘아이돌 그룹명/연예인 가명(22%)’, ‘방송 프로그램(19%)’이 그 뒤를 이었다.

우리가 한글을 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잘못된 일본식, 영어식 한글 표현을 바로잡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일본식 단어인 ‘곤색’을 진남색(감청색)으로, ‘다대기’를 다진 양념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간지난다’, ‘미싱’, ‘무대뽕’도 일본식 단어다. 각각 맴시 있다, 재봉틀, 무턱대고(막무가내)라고 바꿔 쓸 수 있다. 영어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기업 경영이 재벌에 의해 좌지우지 되다(by)’를 ‘재벌이 기업 경영을 좌지우지 하다’로 표현하는 것이 좋다. ‘병원이 도시 중심지에 위치해 있다(be located in)’도 번역하면서 생긴 표현이므로 ‘병원이 도시 중심지에 있다’고 간략하게 바꿔 쓰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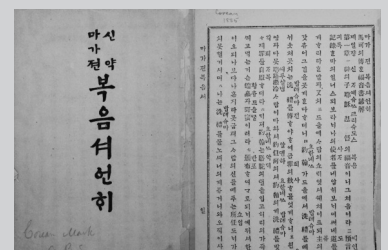
자주 쓰는 외래어를 우리말로 바꿔서 써보는 것도 좋다. ‘바캉스(vacance)’는 휴가 혹은 피서라고 쓰면 어떨까? 이발 할 때 쓰는 ‘바리깡’은 순수 프랑스어이다. 이발기로 순화해서 사용할 수 있다. 우유를 넣은 커피라는 의미를 가진 ‘카페오레’는 프랑스어이다. ‘까페라페’가 이탈리아식 커피라면 카페오레는 프랑스식 커피다. 우리말 우유커피로 쓸 수 있다.



▲ 세종대왕.



▲ 한글성서 번역에 참가한 백홍준.



▲ 이소정 선교사가 일본에서 출간한 '신약마가전복음서언해'



◀ 이소정 선교사.



▲ 최초의 한글성서 '예수성교누가복음전서'

전문가 기고_ 고통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여기, 이 자리’를 감사하는 믿음



하혜숙 교수
(한국방송통신대 청소년
교육과, 강동 온누리교회)

그렇게도 벗어나고 싶어 하는 현재의 내 자리가, 가시방석 같고 싫기만 한 여기 내 자리가, 알고 보니 돌도 없는 꽃자리라고 말하는 시(구상, ‘꽃자리’)가 있다. 우리는 삶의 여정에서 현재 내가 있는 이 자리가 너무 싫어서 빨리 벗어나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다.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있는 ‘저 자리’로 옮겨갔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하고, 저 자리가 마냥 부럽기만 할 때가 있다. 우리는 당면한 고통에 직면하고 싶지 않을 때 그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무언가를 찾거나 도망가려고 한다.

불안 유형과 방어기제

심리학자 프로이트는 1926년 책 〈억압, 증상과 불안〉을 통해 자아가 불안을 의식적인 수준에서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다룰 수 없을 때는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현실을 거부하고 왜곡하는 방어기제(defense mechanism)를 사용한다고 주장했다. 자아가 느끼는 불안은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현실 불안(reality anxiety)이다. 실제 외부 세계에서 받는 위협이나 위험에 대한 인식으로 느끼는 불안으로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불안을 의미한다. 가파른 내리막길에서 넘어질 것 같은 불안감을 느끼는 것은 현실 불안이다.

둘째, 신경증적 불안(neurotic anxiety)이다. 실제로 불안을 느낄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아가 본능적 충동을 통제하지 못해 불상사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위협을 느껴서 불안에 사로잡히는 것을 의미한다. 신경증적 불안은 원초아(성격 중에서 생물학적이고 본능적인 요소)의 쾌락이 자아를 전복시킬 것 같은 두려움에서 기인한다.

셋째, 도덕적 불안(moral anxiety)이다. 초자아(프로이트의 성격 구조에서 마지막으로 발달하는 체계, 사회규범과 기준이 내면화된 것을 말함)의 도덕적 기준을 지키지 못해 처벌받을 거라는 불안으로 자기 양심에 대한 두려움이다. 자신의 도덕적 원칙에 위배되는 원초아의 충동이 일어나면 초자아는 수치와 죄의식을 느끼게 된다.

이처럼 불안을 느끼게 되면 우리의 자아는 반사적으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심리적 방패를 꺼내는데 그것이 바로 ‘방어기제’다. 방어기제는 전적으로 병리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정상적인 대처 행동이다. 그러나 이것이 현

실의 문제를 피하려는 삶의 양식으로 굳어지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주 사용하게 되는 방어기제 몇 가지 살펴보고도록 하겠다.

먼저, 억압(Repression)이다. 억압은 고통스럽거나 위협적인 경험, 생각, 감정 등을 의식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을 말한다. 사회적, 윤리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욕구나 충동, 생각을 자신의 무의식 속으로 감춰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사건이나 경험을 완전하게 억압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억압된 욕망이 종종 꿈, 농담, 말실수 등으로 간접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억압된 내용이 무의식 속에 남아 있어서 현재 행동의 동기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억압은 모든 방어기제의 기초라고 할 수 있다.

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충동이나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이나 사물에 전가하는 것이다. 자신의 결점을 타인이나 환경 탓으로 돌려 비난함으로써 자신의 결함이나 약점 때문에 갖게 되는 위협이나 불안으로부터 자아를 보호하고자 하는 방어기제이다. 예를 들어 자신의 성적(性的)이거나 공격적인 충동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자신의 수용될 수 없는 욕망을 인식하거나 다루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고등학교 윤리 교사가 있었는데 그는 수업이 끝나고 나오면서 “몇 학년 몇 반 그 여학생 도무지 못쓰겠다”고 화를 냈다. 짧은 치마를 입고서 자기를 성적으로 유혹하는 질 나쁜 학생이라고 비난을 했다. 하지만 사실은 자신이 그 여학생에게 성적 충동을 느꼈고, 평생을

더 큰 능력이 생긴다는 것을 보여주셨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마 16:25).

고통의 불 가운데를 지나고 나면 그동안 알 수 없었던 주님의 여러 모습을 알게 된다. 공급자 되시는 주님, 위로자 되시는 주님, 치유자 되시는 주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는 주님, 내 영혼을 사랑하시는 주님, 가족보다 가까운 친구가 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된다. 고통의 자리를 억압하고, 부인하고,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지 않고, 온전히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직면할 때 체험하게 되는 은혜이다. 이전에 가지고 있던 어떤 것을 계속 가지고 있었더라면 혹은 어떤 사람이 여전히 내 인생에 계속 남아있었다더라면 결코 알 수 없었을 주님의 모습이 그 어떤 것이 내 인생에서 사라지고, 그 사람이 내 곁을 떠나갔을 때 그제야 내 안으로 들어오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나를 깨끗하게 하고, 나를 세우고, 나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릇으로 새롭게 빚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된다.

우리는 영광은 원하지만 재는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기쁨은 원하지만 마음이 힘든 것은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상한 마음을 경험하지 않고는 찬양의 웃을 입을 수 없다. 재를 지나지 않고는 영광을 경험할 수 없다. 우리는 사라져버린 것들 때문에 후회하고 고통스러워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남은 것으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이시다. 예전에 저지른 실수와 죄, 예전에 일어난 안 좋은 일과 과거로부터 깨끗하게 씻겨야 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은 과거의 것, 죽은 것을 만지면 부정하게 된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기록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게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히 9:13-14).

죽은 과거로 인한 자기 정죄를 버리고, 눈을 들어 앞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 나이가 들수록 과거를 돌아보고 과거에 살기가 쉬운 것 같다. “내가 더 열심히 했다면 직장을 잃지 않았을 거야”, “내가 더 노력했다면 이혼하지 않았을 거야” 모두 지난 일이다. 이제 과거를 보혈로 덮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야 한다. 하나님 자녀의 삶은 뒤(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음을 다시 기억하기 바란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빌 3:13-14).

과거를 보혈로 덮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야 한다.

하나님 자녀의 삶은 뒤(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음을 다시 기억하기 바란다.

다음으로 부인(또는 거부, 부정, Denial)이다. 힘든 현실의 외상적 상황을 무시함으로써 불유쾌한 현실을 깨닫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의식화된다면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생각, 욕구, 충동을 무의식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전쟁이나 재난과 같은 비극적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이를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현실에 대해 스스로 눈을 감아버리게 된다. 암으로 죽어가면서도 자신은 암이 아니고 의사의 오진이라고 주장하거나, 애인이 자신을 버렸는데도 아직도 자신을 사랑한다고 믿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내가 만난 한 내담자는 여러 명의 누나가 있는 집의 외아들이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가 홀로 어렵사리 자녀들을 키워왔다. 내담자가 일류대학 졸업을 눈앞에 둔 어느 날, 어머니가 병에 걸렸고 수술을 했지만 임종을 맞이하게 됐다.

마지막 순간이 되어 어머니가 외아들을 보고 싶다고 간절히 불렀지만 아들은 끝까지 어머니의 병실에 들어가지 않았다. 결국 어머니는 임종하셨고 장례를 치렀다. 아들은 중년이 될 때까지 어머니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았다. 어머니가 여전히 살아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은 엄연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현실에 자신의 한쪽 눈을 감아버린 것이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나머지 어머니의 죽음을 차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다.

투사(Projection)는 자기 스스로 혹은 사회

윤리 교사로 엄격하게 살아온 자신이 그런 충동을 느꼈다는 것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다.

재를 지나지 않고는
영광을 경험할 수 없다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정신적 질환이나 심리적 장애는 눈앞에 직면한 고통을 피하려고 다른 것에 의존할 때 그것이 오히려 더 큰 고통의 부메랑으로 되돌아오는 거라고 할 수 있다. 괴로움을 잊으려고 술을 마시기 시작했지만 결국 알코올 중독이 더 큰 문제가 되어 삶을 파괴하는 경우를 봐도 그렇고, 앞서 예를 들었던 어머니의 죽음을 부인했던 외아들은 어머니의 죽음을 인정하는 슬픔과 고통은 피했지만 그 결과로 현실에서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고립된 외로운 삶을 사는 더 큰 고통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앎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약 1:2-4).

예수님께서서는 직접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 피하고 싶은 자리였지만 그 자리를 감당해내셨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고통을 두려워하며, 그것을 피하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보다 죽은 가운데 있을 때

볼만한 크리스천 웹드라마_ 'LIFE 시즌3'

“소명과 부르심을 깨달아야 한다”



크리스천 직장인들의 애환과 삶 그리고 신앙

현대사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신앙적인 갈등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건 알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직장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상사에게 인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늘 부담감을 안고 살고 있다. 그러다 보니 직장인 크리스천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쉽다. 따라서 크리스천 직장인들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부르심을 깨달아야 한다.

여기, 하루 종일 격무에 시달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잃어버린 직장인 크리스천들에게 추천해줄 만한 웹드라마가 한편 있다. 'LIFE 시즌3' 다. 이 웹드라마 한편을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크리스천 직장인으로서 정체성을 지키고, 소명과 부르심을 따라 사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다.

/ 권한송 기자 kcs123@onnuri.org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마음을 다해 하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주께 유업의 상을 받을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분은 주 그리스도입니다”(골 3:23~24).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교회와 선교단체에서 사역하는 것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직장생활을 비롯한 모든 삶에서 동일하게 적용해야 할 사명이다. 크리스천들이 주어진 자리에서 소명과 부르심을 깨닫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크리스천 웹드라마 'LIFE 시즌3'는 그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크리스천 직장인들이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생생한 에피소드를 통해 알려주기 때문이다.

크리스천 웹드라마 'LIFE 시즌3'는 '케어박스'라는 작은 물류창고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이지만 아주 특별한 이

야기를 담고 있다. 크리스천 직원들 간의 갈등을 다루면서 그들의 신앙적인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임재민, 광대희, 이재연, 박연하, 주영광, 김시연, 설필립, 박하솔, 권용인, 김민호 등이 연기했고, 감독은 이보람 전도사(케어코너즈)가 맡았다.

누구나 겪을 법한 에피소드 묘사

크리스천 웹드라마 'LIFE 시즌1'은 제11회 국제기독교 영상대전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LIFE 시즌1과 LIFE 시즌2에서는 '내 인생은 나의 것인가?', '성공적인 인생',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참된 신앙생활이란?', '용서할 수 없는 순간', '다가오는 유혹들', '남과 여 그리고 아름다운 사랑', '결혼 그리고 영원한 사랑', '아름다운 남녀관계', '나 혼자 사는 세상', '빛도 없이 소리도 없이', '뱀처럼 비

둘기처럼',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것', '보지 못하는 것', '나를 부르실 때' 등을 주제로 크리스천들이 삶 속에서 겪어왔을 법한 어려움들을 생생하게 묘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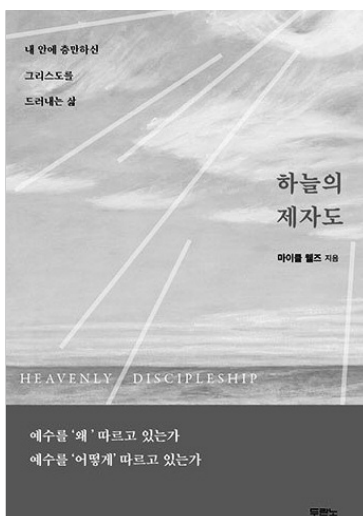
크리스천 웹드라마 'LIFE 시즌3'에서는 크리스천 직장인들의 애환과 삶 그리고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크리스천 웹드라마 'LIFE 시즌3'를 제작한 케어코너즈는 미디어 사역, 예배사역, 훈련사역 등을 하고 있다. 교회나 여러 선교단체에 방문해서 영상과 메시지를 보여주고 들려줌으로써 선교 헌신자들을 모집하기도 한다.

크리스천 웹드라마 'LIFE 시즌3'는 5월 24일부터 방영하고 있다. 매주 목요일, 유튜브, '케어코너즈 사이트' (<http://www.carecomers.com>), 네이버TV 등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두란노 신간

“기쁨이 없고 죄를 곱씹는 성도들에게”

그 갈릴리로 향합니다



《하늘의 제자도》

마이클 웰즈 / 두란노 / 18,000원

제자도(弟子道)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할 자세를 일컫는 말이다. 제법 신앙생활을 한 성도들 중에서 제자훈련을 받지 않는 경우가 없다. 그런데 그 많은 성도들이 아직도 참된 제자가 되지 못하고 헤매고 있다. 그 이유에 대해 <하늘의 제자도>의 저자 마이클 웰즈는 성도들이 '세상적 제자도'를 따르고 있기 때문이라 진단하며 '하늘의 제자도'를 제시했다.

세상적 제자도의 특징은 '성취위주'다. 성도의 부족한 점을 알아낸 다음 그것을 채워 넣기 위한 제자훈련이라 할 수 있다. 저자는 세상적 제자도를 껌질만 맛보는 훈련이라고 표현한다. 성취위주의 제자도를 따르는 한 성도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왜 따라야 하는지, 어떻게 따라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하늘의 제자도는 쌓는 훈련이 아닌 믿음을 드러내는 삶을 뜻한다. 저자는 그리스도, 믿음, 사랑을 드러내는 하늘의 제자도를 따르면 생명과 진리를 누릴 수 있게 된다고 말한다. <하늘의 제자도>는 세상적 제자도를 돌아보게 하고, 하늘의 제자도를 소개하고 있으며, 주의해야 할 점들을 알려주고 있다. 믿는데도 삶의 기쁨이 없는 성도, 죄를 곱씹는 성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하고 싶다.



《간절함의 자리》

오지영 / 두란노 / 11,000원

하기를 추천한다. “갈릴리의 영혼들은 간절합니다. 오늘을 놓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영혼들입니다. 우리는 그 갈릴리로 향합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갈릴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간절하게 예수님의 은혜와 만남을 기대하는 성도들의 고백이다. 예수님이 사셨던 갈릴리에도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친히 곁에 만나 주셨다.

<간절함의 자리>는 당시 갈릴리로 돌아가 예수님의 여정을 돌아보는 책이다. 성서 원문과 성서 시대적 배경 연구를 통해 생생하게 예수님의 여정과 사랑을 돌아본다. 누가복음 4장부터 8장까지의 여정을 들여다본다.

예수님의 갈릴리 여정을 돌아보면서 상쳐받은 영혼을 회복할 수 있다. <간절함의 자리>에서는 예수님이 10번의 만남을 통해 공동체에서 소외당한 아픈 영혼, 많은 것을 가졌으나 홀로인 영혼, 어딘가에 묶여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전한 회복의 메시지를 다시 듣는다. 저자의 깊은 묵상과 명쾌한 설명과 함께 예수님의 여정에 참여



지난 5월 러브소나타 삿포로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서로를 축복하며 기뻐하고 있다.

러브소나타 후쿠오카, 160명의 복음전달자 모집, 한일 40일 릴레이금식기도

11월 13~14일 열리는 ‘러브소나타 후쿠오카’ 집회에 참가할 160명의 복음전달자를 모집한다. 오늘(7일)까지 서빙고 온누리교회 목회행정실이나 홈페이지(www.lovesonata.org)에서 신청하면 된다. 캠퍼스는 목회지원실에서 신청하면 된다. A팀(11월 12일~15일) 44명, B팀(11월 13일~16일) 50명을 추가로 모집한다.

러브소나타 한국본부 스태프들과 후쿠오카 현지에서는 지난 1일부터 ‘40일 릴레이금식기도’를 시작했다. 현재 69개 교회가 협력을 약속했고, 현지 실행위원회는 100개 협력교회를 목표로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문의: 02-749-1149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2007 러브소나타 후쿠오카 결신자 간증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 번



요시하라 미치코 성도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요시하라 미치코라고 합니다. 10년 전 후쿠오카에서 열린 러브소나타 집회에 지인의 초대로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찬양을 들었습니다. 그 노래를 듣는 순간, 마음속에 감격이 일었습니다. ‘아, 나는 사랑받아 마땅한 존재구나’ 라고요. 마치 오랫동안 꺾꽂혀 막아놓았던 병뚜껑을 ‘뽕’ 하고 따는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

다는 사실이 그렇게 기쁘고 감격스러울 수 없었습니다. 이날 저는 하나님 믿기로 결심했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저에게 구원의 감격을 선사한 러브소나타 집회를 열어주신 온누리교회와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덕분에 지금의 저처럼 구원받은 이들이 하나둘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전한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의 사랑과 헌신을 기대합니다. 후쿠오카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후쿠오카 기 · 도 · 제 · 목

- 10월 8일(월) 러브소나타 집회의 모든 일정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도록
- 10월 9일(화) 현지에 100개 협력교회가 세워지도록
- 10월 10일(수) 러브소나타 후쿠오카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결신하도록
- 10월 11일(목) 이재훈 목사님과 모든 출연자들이 영적전쟁에서 승리하도록
- 10월 12일(금) 참가자와 스태프들이 기쁨, 기도, 감사함으로 사역을 준비하도록
- 10월 13일(토) 눈물로 복음의 씨를 뿌리고,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도록
- 10월 14일(주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라는 말씀이 성취되는 집회되도록

추수의 기쁨, 이웃과 나누다

쌀 3만kg 등 추수감사절 헌물 이웃에 전달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봉헌한 헌물을 지역사회 이웃들과 나눴다.

지난 주일(30일) 추수감사절을 맞아 성도들이 헌물한 쌀 3만kg과 과일 50박스, 유아용품 10박스 등을 온누리교회와 지역

교회 이름으로 노인복지센터, 미혼모센터, 선교회, 독거노인, 탈북민, 이주민 등에게 전달했다. 이날 헌물을 이웃들에게 나눠준 성도들은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추수의 기쁨을 이웃들과 나눌 수 있어 뜻 깊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지구촌 이웃 위로하는 ‘NGO 더멋진세상’

재해지역 긴급구호팀 파견, 난민 위한 급식 및 식수

NGO 더멋진세상이 태풍, 지진, 전쟁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지구촌 이웃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있다. NGO 더멋진세상을 중심으로 꾸려진 온누리교회 긴급구호팀은 지난 4일부터 태풍 ‘망쿳’으로 인한 피해가 극심했던 필리핀 포폴라시온, 바랑가이 마을 주민들을 섬기고 있다.

840가구에 식량과 담요를 배포했고, 모기장 배포 및 학교 복구사업도 진행했다. 호세 도루원(바랑가이 동장)은 “이렇게 마을을 지원 해

주니 NGO 더멋진세상과 온누리교회 성도들에게 너무나 감사하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번 주에는 인도네시아 강진 및 쓰나미 피해지역을 찾아가 주민들을 위로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8월 2일 NGO 더멋진세상이 완공한 우간다 부드리프라이머리스쿨에서는 남수단 난민(차세대)을 위한 지원사업을 활발하게 실시하고 있다. 지난달 28일부터 학생 2천4백 명을 위한 급식과 식수 지원을 시작했다.

한마음정신회복예배 20주년 기념예배 및 세미나

한마음 정신회복예배 창립 20주년 기념예배 및 세미나 ‘명의를 만나다’를 개최한다. 기념예배는 10월 14일 주일 오후 7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한동홀에서 드린다. 이재훈 담임목사가 설교한다. 기념세미나 ‘명의를 만나다’

는 10월 15일과 22일 월요일 오후 6시 서빙고 한동홀에서 진행한다. 15일 김철웅 소장(국립정신건강센터), 22일 황태연 부장(국립정신건강센터)이 강의한다. 참가신청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에서 하고, 회비는 3만원이다.

박혜신 청와대 그림 전시, 최종천 소속 극단 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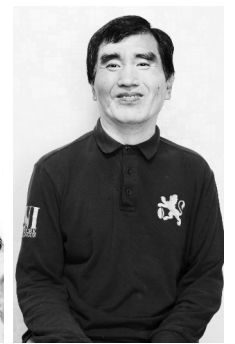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가을날, 온누리교회 발달장애인들의 좋은 소식도 풍성하다. 지난달 1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 발표 및 초청 간담회’에서 지적장애 3급 박혜신 자매(예수사랑부)의 그림이 전시되었다. 노란 프리지아 꽃부터 산, 나무, 개울 등 우리나라 자연을 묘사한 8점이 전시되었다.

박혜신 자매 어머니 김명희 권사는 “발달장애인도 그림으로 세상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어서 감사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고, 다른 발달장애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소망했다.

또한, 지난달 21일에는 제4회 서울시민연극제에서 뇌성마비 1급 최종천 형제(누리사랑부)가 소속된 ‘물맑고 깊은’ 극단이 17개 극단 중에서 금상을 수상했다. 물맑고 깊은 극단은



박혜신 자매



최종천 형제

서울시민연극제에서 ‘미리도 과리도 업시(미워할 이도 사랑할 이도 없이)’를 선보였고, 최종천 형제는 주인공 맹수역을 맡아 열연했다.

최종천 형제는 “연극을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기쁘게 상까지 받아서 뿌듯하고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하나원 동창생 만남의 잔치 ‘DREAM AGAIN’

10월 9일 오전 10시 양재 화평홀

사회선교부 하나원지역팀에서 주최하는 하나원 동창생 만남의 잔치 ‘DREAM AGAIN’이 10월 9일 오전 10시 양재 온누리교회 화평홀에서 막 오른다. 하나원에서 드리는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원을 수료한 지 2~3년 된 탈북민 60여 명이 참석한다.

하나원 동창생 만남의 잔치 ‘DREAM AGAIN’은 탈북민들이 주님과과의 첫 만남을 떠올리고, 온누리교회 성도들과 관계를 지속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날 행사는 3부로 나뉘어서 진행된다. 1부 ‘다시 하나원 속으로’는 하나원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추억하고, 2부 ‘위로’에서는 레크리에이션, 찬양 특선, 서예준 찬양사역자의 스토리텔링(간증) 등이 이어진다. 3부 ‘이제 주님 앞으로’는 이기훈 목사가 메시지를 전하고, 화관 세리머니, 자매결연, 신앙결단 등을 할 예정이다.

■ 일.하.세.아카데미 스태프 간증



/ 김성주 팀장(일.하.세.아카데미)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2016년 11월 서빙고 온누리교회 S브릿지공동체 순장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일.하.세.아카데미가 벌써 10기가 진행되었다. 해외 일.하.세.아카데미도 2회 진행했다. 2년여 짧은 기간 동안 일.하.세.아카데미를 총 13회 진행해서 450여 명의 수료자를 배출했다. 나는 그동안 거의 매주 토요일 홍보, 진행, 강의, 찬양, 조장, 섬김, 중보기도로 수강생들을 섬겼다. 이 지면을 빌려 수원, 대전, 인천, 부천, 양지 등 캠퍼스 교회와 해외 비전교회 열바인, 호주 시드니까지 열정적으로 섬겨주신 일.하.세.아카데미 사역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매주 토요일 오전 일터회복예배인 ‘GUM(Get Up in the Marketplace)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아카데미를 진행했다.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빡빡한 일정이었지만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와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있다. 수강생들의 관심과 열의, 사역자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해낼 수 있었다.

일.하.세.아카데미는 단순한 교회 양육프로그램이 아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일터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삶의 실천 운동이다. 목회자가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성도들이 강의하는 성령운동, 성도운동, 삶

의 실천운동이다. ‘일과 예배’, ‘그리스도인의 직업관’, ‘그리스도인의 문화관’, ‘성공관’, ‘재물관’, ‘대인관계’, ‘일터에서의 영성훈련’ 등 총 7개의 강의와 조별토론, 조별활동, 간증 등이 이어진다. 매주 토요일 오후 5시간 씩 총 4주 동안 이어진다. 내년부터는 5주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강의는 평신도들이 하고, 일방적인 강의를 통해 정답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일터에서의 경험을 나누고 문제를 꼬집어내는 식으로 실시된다. 어떤 주제를 던지면 토론을 통해 스스로 답을 찾도록 한다. 일터 혹은 일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일.하.세.아카데미의 교육 목적이다. 일.하.세.아카데미를 섬기다보면 참여자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듣는다.

“나만 고민하고 갈등하는 줄 알았어요. 조원들의 이야기가 다 내 이야기네요.”

일.하.세.아카데미를 수강하신 분들의 한결 같은 소감이다. 나는 10월 13일부터 시작하는 11기 일.하.세.아카데미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로 섬길 것이다. 사역자들과 수강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하여 각자의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것을 믿는다.

문의: 010-3504-8394

■ 한국어선교학교 스태프 간증



/ 차춘근 팀장(한국어선교학교)

한국어선교학교의 역할

2010년 이후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로 이주했다. 그 수가 2018년 현재 200만 명을 넘고 있다. 곧 500만 시대가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외에서는 K-POP 등의 한류열풍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들 사이에서 한국어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 온누리교회 리더십들은 외국인들의 한국어 수요 증가에 관심을 가지고 효율적인 선교 전략을 구축했다. 서빙고 온누리교회 한글학교팀, 양재 온누리교회 한글선교팀, 안산M센터 등이 개별적으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어사역을 진행했다. 그러다가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그래서 한국어선교학교를 2016년 9월 개설하게 되었다.

온누리교회는 한국어선교학교를 통해서 훈련받은 이주 외국인들을 자국의 선교사로 역파송하고 있다. 국내 선교사를 외국에 파송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비용과 효율성 측면에서 선교 효과가 더욱 크기 때문이다.

한국어선교학교 1기 84명, 2기 53명, 3기 56명이 수료했다. 2018년 현재 약 15명이 한국

어 선교사로 화성M센터, 안산M센터, 김포M센터, 서빙고 한글학교 등에서 섬기고 있다.

한국어선교학교의 역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어 전문가들을 재능기부자로 모집하고 있다. 둘째, 한국어 비전문가가 전문가로 양성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셋째, 평신도들에게 이주민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넷째, 해외 선교사와 성도들을 연결해 이주민 선교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게 한다. 다섯째, 한국어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해외 선교사 파송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한다. 여섯째, 한국어를 통해 현지 또는 은퇴한 성도들이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이주민을 섬길 수 있도록 한다. 이와 같이 한국어선교학교가 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확립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오는 11월 3일부터 12월 29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양재 온누리교회 두란노홀에서 9주 동안 한국어선교학교 4기가 진행될 예정이다. 아이스쿨에서 수강신청을 받고 있다. 많은 성도들이 한국어선교학교를 통해 선교에 동참하기를 소망한다.

문의: 010-3290-4506

■ 남양주 온누리M미션 스태프 간증



/ 양옥진 선교사(남양주 온누리M미션)

선교에 대한 관점을 새롭게

오늘날 많은 나라가 복음의 문을 닫고 있다. 아예 들어갈 수 없는 나라도 있다.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나라가 너무 많아서 ‘세계복음화’라는 과업을 완수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인다. 하지만 그런 태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다. 문이 닫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룻밤 사이에 그 문들을 여실 수 있다. 닫힌 문 뒤에서 일하실 수도 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부터 선교가 시작된다. 동시에 선교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다.

그동안 우리는 선교하면 지리적으로 산을 넘고, 바다 건너 가야 한다고 생각했었다. 해외 선교가 전부였다. 사실 우리나라는 오랜 기간 단일민족이라는 환경과 생각의 틀에 갇혀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다 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 조금씩 외국인 근로자들이 산업연수생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외국인 여성들이 농촌 총각들과 결혼하기 위해서 한국에 오기 시작했다. 한국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함께 외국인 거주자가 2016년에는 200만 명을 넘어서게 되었다. 신기하

고 놀라울 뿐이다.

선교에 대한 관점을 해외와 국내라는 균형 잡힌 안목으로 바라봐야 한다. 온누리교회 비전이 ‘2000/10000’이 아닌가? 2천 명의 선교사, 2천 개의 교회개척과 동시에 1만 명의 선교사역자를 배출하는 것이 비전 아닌가? 온누리교회는 그 비전에 맞게 선교사를 배출했다. 하지만 1만 명의 사역자는 비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500여 명밖에 세워지지 못했다. 왜 이런 상황이 되었는가? 어떻게 해야 보완할 수 있겠는가? 선교의 개념부터 다시 세우자. 그 대상이 해외에 있든 국내에 있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면 일반사역자로 인정하고 그 사역을 적극 권장해야 하지 않았는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200만 명 이상의 이주민을 보내주셨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비전 이기에 우리는 사역을 다해 부족한 부분을 채워 가야 한다. 해외 못지않게 국내에서도 일반사역자들을 적극 양성해야 할 것이다. 교회에서 국내로 선교사와 일반사역자를 파송해 주면 좋겠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선교가 무의의하게 될 것이다.

■ 내가 만난 하나님



/ 박명신 총무(김포공동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

나는 모태신앙이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많은 은혜를 부어주셔서 큰 문제없이 신앙생활을 해왔다. 그리고 온누리교회 출석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있게 경험하게 됐다. 최근 들어 아내와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눴다. 우리의 신앙에는 행함이 수반되어야 한다. 우리가 듣고 배운 말씀들이 관념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행함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삶 가운데 열매가 없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나름대로 삶의 기준을 만든다. 나 역시 나만의 생활방식을 고수해 왔었다. 하지만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면서 그 기준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다. 또 하나님의 사역에 관한 나의 생각도 많이 변화됐다. 내 생각과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됐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귀한 달란트를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달란트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놀랍게 이루어 가신다. 하지

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능력 밖의 일을 행하도록 인도하시기도 한다. 내가 온누리교회에서 처음 와서 섬긴 사역은 유아부였다. 내가 가진 달란트로는 유아부를 섬길 수 없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만한 능력과 자원을 부어주셨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로 가기만 하면 된다. 때로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나는 현재 김포공동체 총무로 섬기고 있다. 총무로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것뿐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지 않는 달란트를 개발하시기도 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빚어 가신다.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걱정하지 마라. 나는 네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하고 너를 도와주겠다.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서 주겠다”(사 41:10).

장로칼럼

그 사랑과 칭찬과 격려가



이석일 장로
(푸른누리공동체)

우리 가정은 양재 온누리교회를 출석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다. 아내는 받은 은혜를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고 했다. 아내에게는 특히 미래 세대에 대한 열정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에게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나도 다른 아이들을 위해 봉사하고 싶어요.”

아내는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유년부 코치가 되었다. 코치로 섬기면서 함께 섬기는 교사들과 매우 가까워졌다. 아내는 함께 일하는 교사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다고 고백했다.

교사들은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자신들의 시간을 소비하면서 아이들을 열정을 다해 섬기고 있었다. 나도 그 사역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었다. 그래서 가끔 유년부 교사들을 격려하기 위해 식사를 대접하고 함께 교제하기도 했다. 교사들의 뜨거운 열정은 내 영혼에 큰 감동을 줬다. 그래서 나도 교사로 헌신했다. 어린 영혼들을 주님 앞에 세우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동역하는 교사들이 있었기에 큰 어려움 없이 섬길 수 있었다.

나는 유년부 교사뿐 아니라 열린새신자예배도 섬겼다. 그곳에서 총무, 팀장, 대표 장로로 6년 동안 섬겼다. 그곳에는 젊은 일꾼들이 많았다. 그 안에서 젊은 친구들과 많은 추억을 쌓았다. 젊은 사람들과 함께 사역하면서 뜨거운 열정을 갖게 됐다.

나는 열린새신자예배를 섬기면서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젊은 사람들이 좋은 일꾼

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성세대들이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열정을 가지고 맡겨진 일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 기성세대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주님의 일에 헌신하는 귀한 일꾼이 될 것이다.

지금 나는 양재 온누리교회 푸른누리공동체를 섬기고 있다. 푸른누리공동체는 목사님, 장로님 등 다섯 가정으로 시작된 모임이다. 지금은 약 150가정이 주일 오후 4시 푸른누리공동체 모임과 순예배에 참석하고 있다.

푸른누리공동체에는 젊은 부부들이 많다. 푸른누리공동체가 젊은 부부들이 마음 편히 예배드리고 교제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젊은 부부들이 성인공동체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집 안에서 순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푸른누리공동체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젊은 부부들을 배려해서 순예배를 진행하고 있다.

내가 온누리교회에 출석한지 어느덧 24년이 됐다. 내가 처음 배정받아 간 순예배는 장로님 두 가정, 환갑이 넘으신 순장님 가정, 내 또래의 젊은 가정, 우리 가정 등 총 다섯 가정이 함께 예배를 드렸었다. 많은 분들이 초신자였던 나를 사랑으로 품어 주셨다. 그 분들이 계셨기에 지금의 내가, 우리 가정이 온누리교회에서 건강하게 믿음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 그때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분들의 그 사랑과 칭찬과 격려가 오늘날 온누리교회를 건강하게 한 기초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권사칼럼

어떤 순간에도 믿음의 눈을 들어...



김종숙 권사
(평택 온누리교회)

온누리교회를 다니기 전에는 나의 신앙생활은 매우 형식적이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없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사랑도 없었다. 그러던 중에 동생을 통해서 양재 온누리교회를 알게 됐다. 온누리교회 예배는 다른 교회 예배와 달랐다.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셨다. 예배에 참석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다. 성령님께서 닫혀있던 내 마음을 여셨다. 그리고 나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겠다고 결단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길 원해요.”

나는 양재 온누리교회에서 말씀 묵상과 찬양을 통해서 서서히 회복되어 갔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키웠다. 특히 순에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통로였다. 순식구들과 힘들고 어려운 점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하는 것을 경험했다. 함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동역할 수 있는 순식구들이 있어서 매우 감사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양재 온누리교회에서 8년 동안 회복시켜 주셨다. 과거의 상처와 아픔이 깨끗이 씻기는 것을 경험했다.

2011년부터는 평택 온누리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다. 하나님께서는 평택 온누리교회에서 나를 사역자의 길로 인도하셨다. 순장과 새가족부 섬김으로 섬기기 시작했다. 양재 온누리교회에서 8년 동안 배우고 익힌 지혜를 가지고 순원들을 섬겼다. 나의 자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 구했다. 내

자원으로 섬기면 탈진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순원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했다. 새가족부에서는 한 마리 양을 찾는 목자의 마음으로 새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알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간구했다. 지금은 새신자 섬김이와 순장을 내려놓은 상태다. 개인적인 문제 때문이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잠시 사역을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는 미용봉사만 하고 있다. 어르신들의 머리카락을 잘라드리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하나님은 온누리교회에서 나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셨다. 그러나 여전히 내 안에 남아 있는 숙제들이 한 가득이다. 나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하셨다. 나는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다. 나의 약함을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봤더니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경험하게 됐다. 지금은 많이 회복되어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기쁘다. 나의 약함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나는 여전히 안일한 신앙생활을 하거나 주님을 완전히 떠났을 것이다. 나의 부족함으로 아이들이 상처를 많이 받았다. 아이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다. 부족한 부모에게 받은 상처들이 주님을 통해서 회복되기를 소망한다.

나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한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즐겨 부르는 찬양이 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어떤 순간에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길 소망한다.

신앙에세이



김영창 목사
(하나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시가 되면 양재 온누리교회 JDS홀은 90여 명의 성도들로 북적인다. 하나공동체가 그곳에서 뜨겁게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공동체는 복음 안에서 작은 통일을 이루고 있다. 먼저 온 통일을 경험하며 남한과 북한이 하나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다. 하나공동체는 2003년 탈북민을 포함한 5-6명의 인원이 양재 온누리교회 숙소동 작은 방에서 시작한 기도모임에서 태동했다. 이제는 어엿한 온누리교회 예배공동체로 자리 잡았다.

강산이 변해도 7번 변했을 것이다. 7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남한과 북한 사이에는 이미 너무 많은 영적, 문화적, 이념적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하나공동체의 모든 성도들은

예배의 모든 순서와 시간을 통하여 서로의 다름을 알아가고, 배려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다. 또 신앙적 차이를 좁히며 하나의 장소, 하나의 예배, 하나의 순으로 어우러져 하나 되는 방법을 배워가고 있다.

이 에세이의 제목을 ‘하나가 되는 첫걸음’이라고 정하였는데 이는 두 가지의 뜻을 내포하고 있다. 먼저는 남한과 북한이 하나가 되는 것을 뜻한다. 또 하나는 먼저 온 통일시대를 살아가는 하나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을 뜻한다. 분단된 70년 동안 간절히 한 마음으로 원하던 하나가 되는 첫걸음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

첫째, ‘사람’이다. 목숨 걸고 자유의 나라 대한민국을 찾은 탈북민의 수는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의 시기부터 현재까지 총 3만2천 명을 넘었다. 그들은 압록강과 두만강을 넘어 중국과 제3국을 거치면서 선교사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복음을 접한다. 크리스천들의 도움으로 많은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에 입국했다. 하

지만 입국할 때에는 90%가 넘는 탈북민이 자신을 크리스천이라고 분명히 밝히지만 국정원과 하나원을 거치면서 그 비율이 현격하게 줄어 40% 가까이 떨어지게 된다. 하나원 수료 이후 2년이 지나면 5% 정도까지 떨어지게 된다. 왜 그런 것일까?

그 이유는 한국 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탈북민 선교 방향이 탈북민의 생계와 재정적 지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교회가 탈북민들을 그저 선교대상과 목적으로만 보았기 때문이다. 실질적인 생계지원은 물론 이겠거니와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우리와 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봐야 한다.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1천만 명 가까운 크리스천들이 3만 명의 탈북민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탈북민은 교회와 공동체를 떠나고 교회는 탈북민사역을 지속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나는 하나공동체가 특별한 공동체이자 탈북민 선교의 모델이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출

신지역은 다르지만 공동체에 속한 성도 모두가 서로를 구분 짓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공동체 성도들은 서로를 탈북민과 남한 사람으로 구분 짓지 않는다. 모두를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대하고 있다.

둘째, ‘사랑’이다. 북한에서는 현재 비핵화를 통한 개혁과 개방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그 속에서 많은 외신들과 대한민국 정치인들, 경제인들이 이제 통일의 때가 된 것처럼 앞다투어 이야기하고 있다. 하나공동체는 이미 2003년부터 통일을 기도로 준비하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고 있었다. 또한 기도응답을 경험하며 매일 감사해하고 있다. 그러나 이 응답이 있기까지 공동체와 탈북민을 지탱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있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께 부탁하고 싶은 게 있다. 하나공동체가 통일 이후 겪게 될 남북 간의 이질감을 극복하고, 동질성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주일강단

(3면에 이어)

믿음과 감사

“우리 귀여운 그레이시. 아침에 잠이 깨면 제일 먼저 달려와 인사하던 그 아이의 달콤한 목소리를 이제는 아침에도, 낮에도, 해 질 무렵에도 들을 수 없어 그림기만 합니다. 항상 내 옆에서 경쾌한 걸음으로 동반해주던 그 아이 없이 산책길을 홀로 걸으면 새삼스럽게 고통의 진동이 저를 괴롭혀 옵니다. 하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그 아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그 아이를 볼 수 없을 겁니다. 그 아이가 우리 삶의 햇빛이었지만 다른 아이가 아니라 구원받은 그레이시를 데려가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어머니 기도해 주십시오. 가끔 저는 복음사역과 관련된 안팎의 시련으로 견디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않으리라’ 말씀하셨고, ‘네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는 감사했습니다. 다른 아이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신의 아이를 데려가신 것에 감사했습니다. 큰딸을 중국 땅에 묻고 남은 세 아들과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도 건강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급히 영국으로 보내려고 양저우에서 상하이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서 5살 된 막내아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양쯔강 공동묘지에 막내아들을 묻고 상하이로 떠났습니다. 아이들을 떠나보낸 뒤 동역자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저는 오늘 사랑하는 아이들과 중국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 아이 두 명에 대해서는 근심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아이들은 지금 예수님의 품 안에서 쉬고 있습니다. 형제여, 저의 눈물은 그칠 줄 모르지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무 가치도 없는 저에게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의 일부를 맡겨주심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역에 뛰어든 것을 조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것은 주님의 일입니다.”

두 자녀와 이별한 아픔에도 그의 중국 선교는 결코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 아내가 새 생명을 출산했는데

영양결핍으로 태어난 아이와 함께 33살에 하늘나라로 떠나게 됩니다. 새 생명과 아내를 하늘로 떠나는 모습을 지켜본 한 선교사가 그 장면을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테일러 부인은 주님의 영원한 팔에 안겼습니다. 저는 이런 장면을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테일러 부인이 마지막 숨을 거둘 때 테일러 선교사는 무릎을 꿇고 그녀를 주님 팔에 의탁했습니다. 그녀와 함께 12년 반 동안 행복한 시절을 살게 하신 주님께 감사했고, 영원하신 주님께서 데려가심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남은 생을 더욱 주님을 위해 헌신하기로 서원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테일러 선교사는 이 일이 있는 후에 동역자들에게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제가 맞이한 슬픔을 생각하면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픈지만 아내를 고통 없이 데려가셨기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의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기보다 기쁨의 눈물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하나님 안에서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 그분을 기뻐합니다. 그 답답한 뜻 안에서 저와 제 아내는 다시는 헤어지지 않도록 연합할 것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주신 저희도 주님 있는 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이후 중국에서 반외국 감정이 심하게 일어나 21명의 외국인이 학살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선교사역을 제대로 할 수 없을 만큼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때 테일러 선교사는 동료 선교사들에게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생애 중 가장 슬프면서도 가장 축복받은 해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체험했습니다. 곤경 중에 우리를 지원하시고 환한 가운데 인내를 주시며, 위험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한 가지 크게 감사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의 처지가 그들과 마찬가지로 위험

하고 앞으로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외국의 힘에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여 자신들을 보호해 주심을 의뢰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중국 땅에 온 것은 이곳의 사역이 쉽거나 안전해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곳에 사람의 보호를 믿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고 왔습니다. 환경이 우리에게 위험하게 변한다 해도 우리는 은혜 가운데 거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현실로 보여야 합니다.”

테일러 선교사의 믿음은 충분한 믿음, 감사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분의 믿음이 단순한 감정이었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사라졌을 것입니다. 열매가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테일러 선교사의 믿음이 어떤 열매로 나타났습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기독교인이 있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중국 정부가 교회를 탄압하고 폐쇄하려 하고 있지만 절대 불가능할 것입니다. 테일러 선교사의 믿음의 선교, 고통 속에서도 감사했던 믿음의 영성이 계속해서 중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감사와 정비례합니다. 믿음이 자라고, 견고할수록 감사가 넘칩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결코 서두르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부르신 그 자리에서 감사하며 주신 소명에 최선을 다합니다. 고통이 닥쳐올수록 충분한 믿음은 더 드러납니다. 고통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충분한지 보여줄 뿐입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감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풍랑을 만난 중에도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은 잡히시던 밤에 감사하시고 제자들과 거룩한 만찬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주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으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게 하십시오”(7절).

우리 믿음이 충분한 믿음이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와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충분한 믿음으로 어떠한 시험과 고난 속에서도 감사가 넘치고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별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실현 불가능한 명령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기교



이주호 팀장
(두란노 결혼예비학교
재정 강사)

많은 신학자들이 예수님을 스토리텔링의 대가라고 일컫는다. 예수님은 36가지 비유를 들어 말씀을 전하셨다.

마태복음 25장 15~30절 말씀에는 너무나도 잘

알려진 달란트 비유가 나온다. 주인이 멀리 떠나면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떠났다.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주인이 돌아왔을 때 정산을 하게 됐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았던 종들은 각각 100% 수익을 낸다. 하지만 1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땅에 묻어두었던 1달란트를 고스란히 주인에게 돌려줬다. 주인은 5달란트, 2달란트를 맡았던 종들에게는 “착하고 충성되었다”고 칭찬하지만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던 종을 향해서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꾸짖으며 “네가 마땅히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

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라고 하고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는 내용이다.

나는 마태복음 25장 15절에서 주인이 종들에게 재능대로 돈을 맡겼다는 말씀을 깊이 묵상했다. 어쩌면 떠나는 주인이 종들의 재능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았을까? 5달란트를 맡은 사람은 장사해서 이윤을 남길 수 있는 능력이 탁월해서 주인이 맡긴 돈을 잘 관리하고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을 거라 믿었던 것이다.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는데 바로 사람마다 타고난 재능이 다르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는 제각각이다. 누구는 노래를 잘 하고, 어떤 이는 운동을 잘하고, 또 어떤 이는 자신만의 학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다. 돈을 잘 관리하고, 사업이나 장사를 통해 수입을 벌어들이는 이도 있다. 각각 재능이 다르다.

누가복음 12장에는 부자 비유가 나온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할 때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였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눅 12:15-21).

열핏 보면 부자는 전혀 잘못된 것이 없어 보인다. 본인 소유 밭에서 수고해서 소출이 풍성해졌고, 그것을 곳간에 다 넣을 수 없으니 더 큰 곳간을 지어서 미래를 위해 저축해 놓겠다는 것이니 특별히 잘못된 부분을 찾을 수 없다. 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부자의 욕심에 대해 언급하셨다. 본인 밭에서 곡식이 차고 넘쳐나는데도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 않는 탐심을 간파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밤 당장 부자의 영혼을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면 그 예비한 곡식과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하시면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나누고 베풀어 하늘나라 창고에 소출한 곡식을 많이 쌓아두어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우리에게 맡겨진 재정을 새로운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우리의 재정은 주인이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중한 선물이자 달란트이다. 재정은 내 것이 아니기에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다. 우리가 소유한 돈은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두신 것이며, 우리는 그것을 잘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청지기다. 청지기 의식을 늘 간직하고 살아야 한다. 많은 돈을 관리하는 청지기인지 적은 돈을 관리하는 청지기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다른 사람을 위해 베풀고 나누는 것은 하늘나라 곳간에 곡식을 쌓는 일이다. 예수님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교훈하고 계신다. 우리가 가진 곳간의 곡식과 앞으로 거둬들일 곡식은 모두 하나님이 잠시 우리의 재능에 따라 잠시 맡겨두신 것이다.

달란트와 청지기

14 **온누리신론**

서빙고

02. 793. 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분당
2부 오전 9:00 분당
3부 오전 11:30 분당
4부 오후 1:50 분당
5부 (십자가의 길) 오후 4시 비전을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분당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시 분당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분당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분당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00 비전을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분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분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분당

목요선교집회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비전을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분당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분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당: 권용갑 목사

매 주일 오전 11:20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532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신상국 부대표(010-7933-5422)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박범식 팀장(010-5225-1519)

야베스맘예배(사별자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6:00~8:30 선교관 403호

문의: 정종희 팀장(010-9391-7997)

문화 미디어 홍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를

문의: 전도본부(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 주일 오전 11:20 서빙고 한동을

문의: 김진현 팀장(010-8567-1808)

일본어예배

매 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을

문의: 김상호 팀장(010-9949-5631)

일본어예배 수요기도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선교관 302호

영어예배

매 주일 오후 4:00 경찬홀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 주일 13:30 경찬홀

문의: 김성철 집사(010-3660-7135)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서빙고(02-3215-3730)

몽골어 주일 14:30 선교관 401호

러시아어 주일 14:00 선교관 301호

네덜어 주일 14:30 선교관 402호/매월 첫주 금토 해나로 섬터

아랍어 주일 14:00 본관 B102/매월 첫주 선교관 402호

페르시아어 주일 14:30 선교관 208호 스페인어예배 14:00

도국교육관 온유홀

안산M센터(031-491-9650)

몽골어 주일 10:30 Joy 201 / 러시아어 주일 10:00

Onnuri Hall / 네덜어 주일 10:30 Peace 303 / 캄보

디아어 주일 10:30 Peace 302 / 미얀마어 주일

10:30 Joy 202 / 필리핀, 파갈톡어 주일 10:30 Peace

301 / 태국어 주일 14:00 Peace 303 / 스리랑카어

주일 11:30 Peace 304 / 베트남어 주일 예배 11:00

Peace 305 / 중국어 청년 주일 14:00 Peace 304

다문화 꿈땅 주일 11:00 Star tree / 다문화 파워웨

이브 주일 14:00 2F Library / 다문화 예꿈 주일

10:30 B105 / 다문화 대형 주일 14:00 4층 Manna

hall / 인도네시아어 주일 14:00 Peace 305 / 우즈베

케스탄어 주일 14:00 1F StarTree / 파키스탄어 주

일 14:00 Peace 301 / 열방예배 9:00, 11:00 4F

Manna hall

김포M센터(010-7762-7718) 캄보

디아어 주일 11:00 양국 프라자 빌딩 703호 /

차세대 주일 11:00 양국 프라자 빌딩 705호

화성M센터(070-8671-8091) 열방

예배 주일 9:00 301호 / 네덜어 주일 9:00 302호

평택M센터(031-651-1702) 몽골어

주일 11:30 펄택 Love Hall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이스라엘 중보기도 모임

서빙고: 매주 토 오전 7:30 시온홀

양재: 매주 토 오전 8:00 JDS홀

문의: 02-792-7075

대학청년부를 위한 어머니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10:00~12:30 본관 B102호

문의: 추명희 집사(010-8000-4792)

군 선교와 군인대 자녀를 위한 기도모임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30

장소: 서빙고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214

마리아행전 중보기도모임

나라와 민족 위해 기도하는 기도부흥운동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신관 3층 드림홀

문의: 여성사역(02-3215-3227)

북한중보기도모임 안내

일시: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30분~9시

장소: 선교관 403호

문의: 송용주 형제(010-8591-8236)

병원사역예배/환우기도모임

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서빙고 신관 301호

대상: 봉사자 및 환우 중보 요청자

문의: 이재신 팀장(010-4753-3150)

Acts29비전빌리지 열방예배

매주 월~금 오전 11시30분~12시 30분

서튼은행(031-331-8182)

서빙고출발 09:30, 양재출발 10:00

비전빌리지(양지)출발 15:00

한터 공동체 예배

탈북민사역에 관심있는 분들을 위한 예배

시간: 매주 오전 10시

장소: 한누리 본부(지하철 9호선 가양역

6번출구, 투썸플레이스 건물 6층)

TIM MK 중보기도 모임

시간: 매월 둘째 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선교관 302호

문의: 김동희 간사(070-4464-8119)

차세대 목요어머니기도회

시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30

장소: 신관 4층 누리홀

아프가니스탄 중보 기도모임

시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30 ~ 12:30

장소: 선교관 2층 꿈아이를

문의: 이신숙 집사 010-3212-2664

온누리가족 나무동산(공원요역) 잔여

기 계약자 모집

자격조건: 온누리교회 등록교인만 계약이

가능(계약자의 가족까지 안함)

동산위치: (재)충효공원(강원도 원주시 문

막읍 공촌리 산 152-2)

사용안내: 매장방식의 납골과, 봉분에 의한

매장

잔여수량(기): 80기

문의: 02-3215-3176

두란노서원 파주물류센터 직원 채용

공고

모집: 경영본부 파주물류센터 직원 채용

마감: 10월 15일(월)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신앙고백서, 성

직증명서, 졸업증명서

접수: <http://www.duranno.com/recruit>

CMN 마하나임 국내 아웃리치 안내

일시: 10월 28일 일요일 오후 2시~6시

장소: 펄택 온누리M센터(경기도 펄택시 원

평로 31, 열림빌딩 2층)

이동: 오후 12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출발

사역: 의료사역(양방, 한방), 미용사역 등

문의: 010-8898-3719

스페인어예배 선교 축제 & 남미친구

Outreach

일시: 10월 28일 오후 1시~7시

장소: 1부(중앙대학교 사범대학부속고등

학교 운동장), 2부(도국교육관)

문의: 010-4924-2703

***게시판 광고마감 목요일 오후 4시**

양재

02. 570. 7430

주일예배(사랑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7부 9시에 뜨는별 오후 9: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월요QT예배

매주 월요일 오후 7:30 화평홀

화요성령집회

매주 화 오후 7:30 기쁨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목요찬양예배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7:50 기쁨홀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 오후 11: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4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50, 하용조 기념홀

문의: 이수준 팀장(010-6398-6022)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20 트리니티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

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Toddler 24~48개월(주기철체플러스)

Jesus Rock 5세~초등1(충성홀 9:00)

Jesus Crew 초등2~초등6(JDS홀 9:00)

Jesus Vine 중등1~중등3(비전홀A 9:00)

도국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국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0분

도국 차세대 9:00 예배

영어부: 도국1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도국1관 꿈아이를(B동 1층)

유년부: 도국1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도국1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도국1관 온유홀(A동 2층)

고등부: 도국1관 기쁨홀(A동 3층)

도국 차세대 11:30 예배

예꿈: 도국1관 꿈터(B동 1층)

꿈땅: 도국1관 충성홀(B동 2층)

도국교육관 주일 11:00 예배(영어)

Adult Service: 도국2관(중대부고 강당)

도국교육관 11:00 영어 차세대예배

Hope Zone(Newborn~Age4)

: 도국2관 (중대부고 5층)

Love Zone(Age5~Grades2)

: 도국2관 (중대부고 5층)

Joy Zone(Grades3~6)

: 도국2관 (중대부고 5층)

OEM Youth(Grade7~12)

: 도국1관 기쁨홀(A동 3층)

도국교육관 주일 오후 2:00 예배

(청년부)

갈렐 청년부 예배: 도국2관(중대부고5층)

사랑부 예배(장애 학생)

주일 오전 9:00 비전홀B

문의: 이루주 전도사(010-9150-5190)

프랑스어 예배

설교: Gerard Tynevez

일시: 주일 오후 2:00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5467-9878, *통역 지원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

들을 위한 공동체

매주일 14:00 양재 JDS홀

CGNTV



한 영혼을 섬기는 CGNTV 의 " 5만명 후원자 " 가 되어주세요

누군가의 간섭 없이 오로지 복음만 전하기 위해
CGNTV는 광고 없이 오직 후원만으로 운영됩니다.

후원만으로 방송국을 운영하는 일,
누군가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CGNTV에게는 꼭 지켜야 할 가치입니다.

CGNTV, 후원으로 지킵니다.

정기후원 [KEB하나은행 573-910002-67804] 문의 02-796-2243